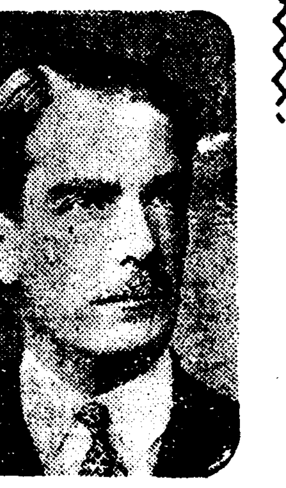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三日(火)

聯盟開會압두고

對伊太利態度에 英佛兩國意見相違

英國의 巴里會商報告書를 佛首相、强硬타고 拒絶


이든氏

라발氏

【巴里二日發聯合】英國代表 이든無任所相은 二日午後 佛國外務省으로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聯盟理事會에 臨할 英佛兩國政府의 方針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席上에서 이든代表는 英國政府의 强硬決意를 通報하고 去八月二十二日의 緊急閣議의 結果 英國政府는 聯盟規約을 擁護하기로 決定하엿다 라는 言明을 言明하엿다고 解釋되다 一方 라발首相은 刻下의 國際狀況을 說하고 佛國政府로서는 可及的 制裁規定의 援用을 避하고 伊太利政府와의 友好關係維持에 努力할 方針이다 라는 言明을 率直히 言明하엿다고 傳한다 巴里會商의 經過報告書에 對해서는 이든代表는 會商決裂의 原因에 對하야 批判을 加할것을 主張하고 單純히 事實上의 報告에 끈치려는 라발首相과의 사이에 意見이 一致되지 아니하엿다 라발首相은 이든代表가 提議한 報告書草案에 對해서는 너무 强硬하다고 署名을 拒否하고 單獨히 報告書를 提出할 意向을 表明하엿다고 解釋된다 最後로 에디오피아皇帝의 利權讓渡에 關하야 情報를 交換하고 이든代表는 아디스아베바駐箚公使의 報告에 基하야 事情을 說明하고 特히 英國政府로서는 事前에 아모것도 알지못하얏다 라는 言을 强調하엿다 右說明에 對하야 라발首相은 充分히 諒解하고 兩代表의 會談은 一時間後 이든代表는 午後六時 外務省을 辭去하엿는데 巴里會商의 經過에 對해서는 끗까지 共同報告書를 提出할 方針으로 주네브行列車中에서 『共同報告書』는 結局 有利한것을 主張하야 極力 라발首相 說得에 努力할것으로 보인다

伊代表部先發隊 壽府에 第一着

國際外交界大緊張

【壽府三日發】四日부터 열릴 聯盟理事會에 出席할 伊太利代表部先發隊는 二日夕刻 주네브의 本舞臺에 各國代表보다 第一먼저 出馬하야 國際外交界는 자못緊張의 度를 加하게되엿는데 伊太利代表部는 今回의 理事會에서는 積極的公正한 立場을 取하야 伊太利의 主張을 堂堂히 披瀝하고 에디오피아를 徹頭徹尾 守勢의 立場에 밀어너흘 作戰으로서 왈왈事件에 關해서도 에디오피아側에 罪가 잇다고 한 前回의 理事會의 情勢가 再燃되기를 期待하고 잇다 또 伊太利는 問題가 總會에 移牒되면 愛蘭自由國首相 데발레라氏를 首班으로한 小國側이 策動하야 伊太利를 道德的으로 非難할 情勢가 驅致되어 그 結果 聯盟을 脫退할수밧게 업시될 憂慮가 잇스므로 끗까지 問題를 總會圈外에 두기를 願하고잇는데 英國도 亦是總會를 召集하야 問題를 一層 紛糾케하는것을 실혀하고잇다고 觀測되므로 伊太利로서는 英國의 援助를 한 힘으로삼고잇는 關係上 英國이 反對하면 總會召集을 求하는일은 업슬것으로 보인다

伊太利軍 中國苦力二千募集

【上海二日發聯合】白系露人의 에디오피아義勇兵募集으로 話題꺼리가 되어잇는 上海에서 伊太利中官憲이 白系露人의 募集員을 使用하야 武器·彈藥·食料의 輸送에 從事하는 에디오피아行의 中國人 苦力 二千을 募集한다고 發表하야 센세이슌을 捲起하고잇다 一方 當地의 伊、佛、蘇各在中外交機關間에는 數日來 往來가 頻繁해젓다

伊代表一行 二日夜羅馬出發

【羅馬二日發】伊太利主席代表 알로이지男一行은 二日夜羅馬를 出發하엿다 三日朝 주네브에 到着할 豫定인데 英佛代表의 到着을 기다려서 드듸어 理事會開催前에 私的會議를 行할것으로 보인다

왈왈事件責任은 에디오피아에?

第五委員會에서 裁定

【巴里二日發聯合】왈왈委員會는 去三十日以來 巴里에서 審議를 續行하야 第五委員 希臘公使 폴리티스氏司會下에 드듸어 왈왈事件의 仲裁手續에 들어갓던바 폴리티스委員은 一般의 豫想에 反하야 事件의 責任은 에디오피아에 歸한다는 裁定을 내려 지금 이미 報告書起草를 完了하엿는데 그 要旨는 如左하다고 傳한다

一、一九三四年十二月五日 伊、에 兩國軍이 왈왈地方에서 衝突하야 多數의 死傷者를 내엇는데 當時 에디오피아軍의 隊長은 伊領소말리란드에 侵入하야 侵略行爲를 하려고 햇다

一、따라서 伊太利部隊長大尉 친말드氏는 먼저 讓步를 要求하엿슴으로 實力行爲를 取한것은 當然한 措置로 事件의 責任은 全혀 에디오피아政府가 負하지안흐면 안된다

今回의 裁定으로 情勢는 全혀 豫想을 不許할것으로 豫測되게 되엿다

壯丁二十萬人 伊政府召集公表

【羅馬二日發】伊太利政府公表 二十一、二歲의 壯丁 二十萬人을 九月下旬 軍籍에 召集하기로되엇다 最初三個月 以上軍務에 服할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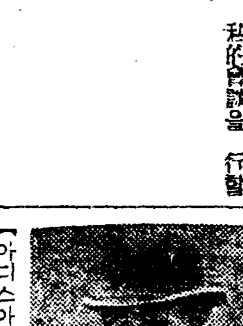
이든無任所相 佛政府와 最後的協議

【倫敦二日發】이든無任所相은 二日 午後零時五十分 飛行機로 倫敦出發、巴里에 向하엿다 同地에서 다시 佛國政府當局과 最後協議를 한後 四日의 聯盟理事會에 出席하려고 주네브에 赴할 豫定이다

에디오피아皇帝 遂、一戰을 決意!

全軍將兵에 瓦斯마스크配給

武器不足은 難免乎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에디오피아 드듸어 꼿나게되어 에디오피아皇帝는 드듸어 一戰을 決意하고 擧國一致 防戰工作에 熱中하고잇다 開戰이 될 境遇에는 伊太利軍은 또 精銳한 空軍部隊를 動員하야 아디스아베바를 爆擊할것으로 보인다 皇帝는 鐵道破壞를 阻止하기 爲하야 近衛兵을 分하야 附近을 嚴重警戒하고잇다 또 正規兵三萬五千 不正規軍 三萬五千은 하랄市附近으로부터 國境오가라덴線에 出動하야 防戰準備를 進行하고 잇다 또 通信連絡도 萬全을 期하기로되엿다 또 全軍將兵에게 對하야 瓦斯마스크配給을 完了하엿는데 武器彈藥의 不足은 避키難하다 戰備는 着着 整頓되어 全軍은 伊太利打倒의 意氣에 불타고잇다 (寫眞은 에國皇帝)

獨伊國境地方에서 佛空陸軍이 大演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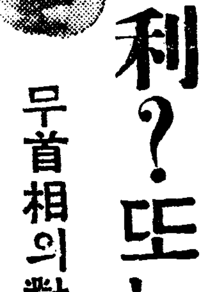
【巴里二日發聯合】佛國政府는 九月一日부터 突然 空陸兩軍을 動員하야 大演習을 開始하엿다 演習地域은 獨伊兩國 國境方面인데 參謀總長 가메란將軍이 親히 指揮에 當하고잇다 그 規模는 極히 크고 九月中은 續行될것으로 보인다

激昂한『아』市市民 伊人技師宅襲擊

【亞的斯亞貝巴二日發】二日 伊太利人技師長 씨놀·치리오의 憤懣을 이기지못하는 아디스아베바市民의 一隊는 無線電信局의 用務를 帶하고 滯在하던 伊太利人技師長 씨놀·치리오의 邸宅에 殺到하야 異口同聲으로 罵倒하면서 無數한 投石을 하며 窓戶其他에 損傷을 與하야 急報로 警官隊가 出動하야 鎭靜하엿는데 市中、郊外에는 群衆이 集團을지어 反伊氣勢를 올리며 敎會의 外敵退散祈禱의 鐘소리와 和하야 軍國氣分은 드듸어 濃厚하다

伊太利? 또는 에디오피아?

무首相의 對聯盟標語



【羅馬二日發】四日부터 開催될 聯盟理事會에 對하야 伊太利側은 標語『에디오피아냐、伊太利냐』를 들고 活躍하기로 決定하엿다 即 伊太利代表의 出發에 압서 右標語를 解說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 聯盟은 에디오피아나 伊太利나 어느하나를 選擇하지안흐면 안된다 伊太利는 벌서 에디오피아와가튼 野蠻國과 가튼位置에서 待遇를 밧는것은 堪耐키 어려운바이다 萬若 聯盟이 伊太利의 에디오피아에 對한 主張에 귀를 기우리지 안을 境遇에는 伊太利로서 모든 境遇에 處할 準備가 完成되어잇다

右言明中『모든 境遇에 處할 準備라는것은 聯盟으로부터 脫退하는것인가』하는 記者의 質問에 對하야 肯否 어느쪽도 答하지아니하엿스나 一般으로는 左의 境遇에는 伊太利는 聯盟으로부터 脫退할것으로 信憑되고잇다

一、伊太利에 對한 制裁云云이 조금이라도 問題될 境遇

一、에디오피아를 聯盟으로부터 放逐하라는 伊太利側의 要求를 聯盟이 拒否할 境遇

英代表一行倫敦出發

【倫敦二日發聯合】聯盟理事會에 出席할 이든英國代表는 二日午後零時四十五分 스트랑 聯盟事務局長 라이트情報主任、할키秘書를 帶同하고 크로이돈飛行場으로부터 飛行機로 巴里에向하엿다

地中海말타島 스봐릿치港閉鎖

英政府의 態度注目

【倫敦二日發聯合】英國政府의 公報에 依하면 말타島根據地當局은 스봐릿치港을 閉鎖하엿다고 보인다 同港에는 地中海艦隊의 殘留艦艇이 碇泊해 잇기때문에 警戒의 必要上 右措置를 取한것으로 解釋된다

伊太利正式抗議

利權讓渡問題로

에디오피아側一蹴?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 一世가 廣汎한 經濟利權을 英、米資本團에 讓渡하엿다는 報道에 接한 伊太利政府는 現地의 公使를 通하야 에디오피아政府에 嚴重抗議를 提出케하엿다고 傳한다 右抗議는 에디오피아政府의 今回의 行動으로서 伊太利가 벌서부터 에디오피아領內에 確保할 諸權益을 侵害한것이라고 하고 그 嚴守를 要求하엿다고 解釋되는데 에디오피아政府는 右에 對하야 同政府는 從來 右에 關하야 如何한 條約도 認定치안는다 따라서 伊太利의 抗議는 아모 根據업는것이라고 斷然 一蹴할 意向으로 보인다

探査開發資本은 全部米資로 에國政府에서發表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當局은 三十日 英米財閥과의사이에 調印된 石油其他鑛物開發權讓渡契約에 關하야 二日 如左히 發表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가 米國財閥과의사이에 調印한 契約은 近近 에디오피아及 米國의 雙方에 登錄될터이다 契約成立의 結果 開發의 任에 當하는 新會社의 資本은 全部 米國財閥에서 내기로되엇다

英資本은 全無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米國財政顧問 콜손氏는 二日 如左히 言明하엿다 今回의 利權特許에 英國政府는 全然關係가 업다 阿弗利加探査開發會社에는 英國資本은 全然 投下하지안헛다

速하면數日中 林陸相辭任乎

느저도今月中엔實現

【東京電話】林陸相에 對한 陸軍部內의 態度로 維止分子의 輿論은 軍第二段의 方法을 終了한後 辭職할것을 希望하고잇스며 林陸相의 責任觀念도 亦是 同樣인것은 勿論이므로 이 具體策으로

一、廣義國防의 徹底

二、諸制度慣習等의 積弊의 一掃

三、兵備의 根本的刷新等을 列擧하고잇는데 이것의 徹底的實現은 天皇機關說의 絶滅과 同樣으로 昨年부터 部內가 가진 希望이므로 右一段落을 기다려 林陸相은 가까운 將來에 陸相의 要職을 辭하고 軍事參議官으로 投退할 決意를 굿게 하야 目下 秘密히 後任者를 物色中이다 그리고 後任者로는 植田朝鮮軍司令官을 爲始하야 寺田臺灣軍司令官、軍事參議官川島大將、東京警備司令官 西義一大將等이 有力視되고잇다 그리고 그 時機는 일르면 數日中 느지면 今月中이라고 보인다

滿中電話連絡 新京、哈市까지擴張

【新京二日發】滿洲國과 北中과의 電話連絡은 이미 實施中인데 今回 其範圍를 新京(附屬地內)及 哈爾濱으로 擴張하야 來十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엿다

話題解說 羅馬法王

新聞紙上에 依하면 羅馬法王은 伊에紛爭에잇서서 무首相의 態度가 挑戰的임에 鑑하야 伊太利政府를 攻擊하는 同時에 『余는 萬下의 全敎會의 實踐과 勢力을 集하야 伊太利政府의 工具로 提供할것을 警戒한다』고 宣言하엿다한다. 그러면 所謂 羅馬法王이란 어떠한 地位에 잇는 사람이며 그 權勢는 果然 어떠한것인가?

法王은 法皇또는 敎皇이라고도 稱하야 가도리敎의 元首를 稱하는 말로 英語로 (Pope)이라한다. 그리고 이 (Pope)이라는 말은 羅典語 (Papa) 即 『父』에 由來하는 것이다. 法王은 事實에잇서 羅馬의 敎司로 使徒의 首領 베드로의 後繼者로서 그리스도의 地上代理者인 카토릭敎의 元首의 地位를 占하게되엿다. 그리고 法王은 羅馬의 敎司일뿐아니라 敎會地域의 大敎司 伊太利及 그屬島의 首席敎司 乃至 全敎會의 首長格으로 카토릭敎徒는 그를 『聖父』 또는 『敎王』라고 부른다.

法王은 基督敎會에잇서서는 그리스도以後의 至上主權을 가지고 最高의 立法權、行政權、裁判權을 가지고잇다. 그런데 이 主權의 由來는 일즉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로부터 賦與되엇다 한다(마태福音 第十六章 第十八節以下參照). 法王의 由來及權勢는 大略以上과 가트니와 그러면 法王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法王의 選擧에 依하는것인데 事實上 羅馬의 敎司가 法王인 關係上 羅馬敎司의 選擧를 意味하게되는 法王의 選擧는 初期에잇서서는 羅馬敎會에 限하얏섯으나 그後는 羅馬에만 꼿치지안코 歷史上 各時代에잇서 여러가지 形態의 選擧가 行되엿고 現在에와서는 全世界의 約七十名의 樞機卿이 法王選擧權을 가지게되엿다. 現在法王 피오十一世는 一九○四年에 被選되엇스로 亦是 以上方法에 依하야 選擧되엇다.

이番 羅馬法王이 伊太利를 攻擊하엿다는것은 戰爭을 罪惡視하고 平和를 사랑한다는 基督敎의 傳統的使命에 基한것으로 法王으로서는 依例히 한番하여야할 말이다.

蘇聯總領事 大橋外交次長과會談

【新京二日發聯合】哈爾濱駐箚蘇聯總領事 스라우비치氏는 一日午後二時 亞細亞號로 新京에 到着하야 午後二時半 滿洲國外交部에 大橋次長을 訪問하고 滿蘇兩國의 國境에서 頻發하는 紛爭事件의 處理와 國境紛爭處理委員會의 設置에 關한 滿洲國政府의 意向을 聽取하고 會談一時間에 辭去하엿는데 同總領事는 午後五時 新京出發、歸任하엿다

日英兩國動向 米政府極注目

◇伊에紛爭에關하야

【華盛頓二日發】華盛頓에서는 伊에紛爭에 關한 日本의 態度는 日本과 對英과의 關係에 따라 主로 움직일것이라고 觀測하는者가 만하서 日本의 對伊關係가 極히 稀薄한대 反하야 對英國關係는 中國及 一般經濟問題에 對하야 直接 重要한 關係를 가지고잇서서 一旦有事時에는 英國은 極東問題에 關하야 日本에 새로운 諒解를 與할것을 代價으로 에디오피아問題에 對하야 伊太利牽制運動에 日本을 勝引하기는 可能하다고 解釋하고 米國은 日英間의 動向에 對하야 注目을 不怠하고잇다 그리고 米國政府가 에디오피아紛爭에 슬려들어가는것을 避하려는 態度는 리케트氏의 에디오피아開發計劃을 機會로 一層明白하게되어 伊에問題에 對해서는 絶對的態度를 가지고 日本도 亦是當分 이를 본바들것이라고 信認하는者가 만흔데 戰爭을 不好하고 꼿까지 國際聯盟을 支持하고 잇는 英國은 今後 모든 機會에 列國의 諒解를 求할것이다

伊軍前衛部隊 國境線突破?

【아디스아베바二日發聯合】伊太利軍前衛部隊正規軍一千名、土民兵 一千五百名은 二日、畢竟 에디오피아의 맛사브西方으로부터 에디오피아國境線을 突破하야 에디오피아領 다나칼地方에 侵入하엿스므로 同地方土民들은 家畜을 放棄하고 避難하엿다고 한다 但右報道는 確報는 아니다

和協委員會의 報告骨子

【壽府二日發】伊에紛爭和協委員會는 聯盟理事會開催를 압두고 紛爭의 發端인 왈왈事件을 中心으로 調査를 急히 行하고잇던바 大體의 結論을 어더 目下 第五和協委員폴리티스氏(希臘公使)가 整理中인데 內定된 報告骨子는 左의 諸項을 包含한것이라고 傳한다 但 當局에서는 이 確認을 拒否하고잇다

一、왈왈事件에 對해서는 에디오피아人의 先攻事實을 認定함

一、賠償問題에 對해서는 委員會가 國境線問題를 解決하기까지 留保함

一、國境問題에 對하야 委員會가 意見一致에 達하지안흘境遇에는 이것을 仲裁法廷에 移管함

人事·集會

◆金根鎬氏(故柳興相尙從銅像建立委員長) 琴徹氏(同副委員長) 崔鵬植氏(同委員)同除幕式終了코 人事次來社

◆大橋恒藏氏(平壤每日新聞社長)病으로 平壤道立病院에 入院加療中이더바 三日午前八時四十分逝去

◆異河潤氏(中央放送局第二放送部員) 辭任人事次來社

◆金復鎭氏(中央日報學藝部長)와 許河伯孃은 三日午前 白川溫泉天一閣에서 結婚式擧行

◆權寧萬氏(興洞醫院醫師) 電話光二五五六番으로變更

八面鋒

◇『컬라운』의 埠頭人夫가 伊太利 軍需品積載를 拒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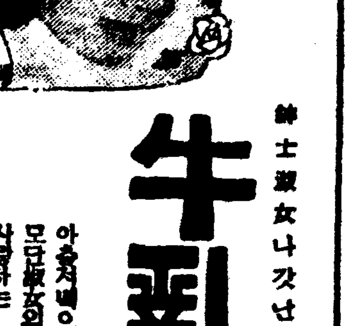
◇草綠은 同色이라든가、黑人同族間의 同情의 片鱗。

◇利權이고 무엇이고 먼저 占領하면 그만이아니냐는것이 伊太利의 態度。

◇明四日의 聯盟理事會가 무슨 處方을 나리랴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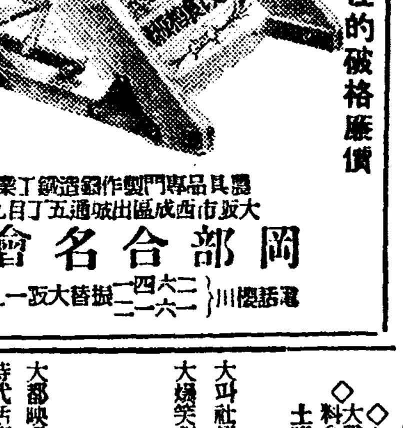
◇國際看護婦大會에서 羅馬法王이 戰爭과 侵略을 詛咒하고 뭇솔리니政府를 攻擊。

◇法王의 存在는 亂世에 비로소 알게 되는가。


紳士淑女나 갓난애나
아츰저녁으로 모든淑女의 사랑하는 세수비누
牛乳石鹼
共進社石鹼株式會社 No.330

角耳式 ゴムベルト
ハイフレックス
チユニアコマンタ
ヒー
在庫豊富 湯澤商店
京城府南米倉町九 電話本局五九八番

男女學生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
◆三四年을보내며 江湖諸賢께告하나니 全世界가 維新으로 향하는 三五年非常時의 新秋를 무엇으로 마지하나? 陸上의 王이며 交通界의 王인 自動車學을 배우라
◆現下趨勢에 應하야 諸州의 分校를 新設함 諸彦은 奮起하라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大漢門前)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八六七番(振替二二〇五六)
改訂學則 要二錢送


農村救濟를爲하야 奉仕的破格廉價
今年에 稻扱機는!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稻扱機를 愛用하라
今秋의準備는 只今하시오
組立 一人用一臺 二人用一臺 特價 七圓五十錢 九圓五十錢
農具品專門製作鑄造工業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電話櫻川 二一四六 二一六一 振替大阪一九九六一

京城 金 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結婚 今般萬花堂은 大擴張키爲하야 新築中이고 落成前新婚의 結婚式場을 一個月間 廉價로 提供하겟사오니 紳士淑女諸氏는 一次 旺臨하심을 仰望하나이다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四 萬花堂 電光二〇九三番

朝報案內
月收百圓 世界大流行特許手藝材料 小資本으로 月收百圓 男女共히 送料四錢切手封入 照會하시면 見本及商報進呈 朝鮮沙里院東里 天光堂 特約店募集 振京一三三七六七
店員募集 十八九歲 任入할 사람 地理精通、內地語 通하는 사람 履歷書持參 午後來店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一九三 野邑機械工業所營業部
恩給 長期低廉 他에比較事業에 利益 特色은 照會하면 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港口마다 女子잇다 全十景
九月三日부터 四日間 超特別大興行 藝苑座第三回中央公演 藝苑座文藝部作 空前의 大레뷰! 藝苑座全員의 總登場으로 豪華燦爛을 極한 空前絶後의 大壯觀 耳目的藝風에 陶醉하자
一、藝苑座재스밴드 開奏樂
二、流行歌獨唱 A、尹才童 B、李正順 C、康福淑 D、李承夏
四、딴스 新式舊式 全景希 康福淑
五、舞踊 모던파리 『少女班』
六、스켓취 자스 ok 孫一平 尹順善
七、流行歌와 名曲 BA 金元心 尹錫炳
八、氣分間奏樂
九、딴스人道雜談 金元浩 李正順
十、合唱…靑年歌 小女班及全景希
十一、白頭美子獨舞
十二、시골사리去 全景希 金元浩 李福本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九月四日封切 新秋第二週의 强力陣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佛PB社超特作日本版 집 업는 아이 로벨、리난少年 主演 엑톨말로名作의 映畵化 異鄕의 어머니 찾자저서 三千里! 이 어린少年의 高尙한 心情에 울것이다
◆英BRP社超特作日本版 世界的뎐너-리히알드도빠主演 꽃피는 시절 樂聖슈베르트의 悲戀과 靑春이、아름다운노래와 눈물로 여러분의 마음의금을 울리다
◆P·C·L超特作全發聲映畵 夏目漱石原作 坊つちやん 山本嘉次郞監督 夏目初子、宇留木浩主演
(次週特別大興行) 鞍馬天狗、電話新撰組
全鮮第一映畵殿堂 電光九五 團成社

豫告 九月十二日부터 스당구 九月十五日부터 封切 王
大阪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爆笑劇 실업슨아주머니 全十卷
大都映畵社超特作品 時代活劇 血祭男一代記 全八卷
喜劇 어린애騷動 全一卷
◇九月三日밤부터 ◇料金 大衆一階十五錢 階上二十錢 土曜日曜祭日은 晝夜二回
麻浦桃花洞 電龍 一三三 桃花劇場

特許 伸和式自動籾摺機
굉장한 籾摺機가 完成
伸和籾摺機

九月三十日限大特價提供
自二馬力至十八馬力 請求에二錢切手要함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ライト發動機 鮮滿總發賣元
伸和式 重油機關 自動籾摺機 配給所
京城府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 一四三七番 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暗渠업는淸溪川은 絕好한培菌溫床

日本一의病都大阪보다京城은二倍率

下水道施設改備업시는根本的防疫無望

끄칠줄 모르고 맹위에 맹위를 가해만가는 경긔도내의 전염병에 대하야는 기보와가티 도위생과(道衛生課)에서는 금년도의 방역에는 거진 실력을 느끼고 새로히 명년도의 방역책으로서 대량적예방주사의 시행을 하리라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이제 일일 하로에 전수한 그 관하의 전염병발생환자수는 시내와 군부를 합하야 사십너의 다수에 달한다

도위생과에는 신추를 마저서 더욱 발호하는 이전염병의 만연에 대하야 더욱 놀라서 지난 팔월말까지의 경성부만의 전염병자 일천구백구십구명을 일본내지도시중에서는 전염병발생수가 제일만타는 대판(大阪)의 팔월말까지의 루계 륙천십오명에 비하면 경성의 인구 사십만에 대하야 대판의인구 삼백만이니 비초여 두배도 훨신 넘는것이 판명되여 경성은 그야말로 「전염병도시」라는 명예스럽지못한 새로운 별명을 듯기에 족하게 되엿다

당국에서는 응급적 방역방법으로 각종방침을 세우나 이전염병방지문제의 근본문제는 멀리도시의 시설에까지 연결된다즉 첫재경성은 하수도(下水道)의설비가튼것이 불완전하기짝이업서서 대경성의 중앙을 꾀뚜른청계천(淸溪川)은 온갓오예물과 진애를 담고 전염병균의 절호의 양육장을 이루고서 아모가티업시 시민에게 악취와 병균을 공급하면서 흐르고잇것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암거(暗渠)의시설이업서 버리워잇다 그래서이것은 멀리군부에까지 주민의건강을 상해주는 작용을 활발하게하고잇다 그바게도 위생구(衛生區)의 불비는물론 각종의위생시설의불완전등은 전염병도시 경성의 온상을 이루고잇다그래서 당국의 방역 공작은 아모리 열심히 해도 고식적이고 일시적인데 끄치고도 시재회의 근본책에는 등한하다고 하야 각방면의 비난은 바야호로 놉하가고잇다

汚水菜蔬洗滌者

東門署百五十名檢擧

별항과가티 경성시내를 흘러가는 청계천(淸溪川)은 하수도의 더러운물이 흘러가고 잇서 시외에서 들어오는 채소장사들이 이 더러운물에 채소를 씨서가지고 들어와서 일반시민에게 팔게됨으로 특히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위생게에서는 이에착안하야 종래부터 이를엄중 취체하여오던중 최근시내에 전염병이 창궐함에비초여 이일오후네시부터 동서좌등(佐藤)위생주임지휘하에 관내청계천 류역 각주재소원을 총동원하야 채소를 씻는자를 일제검거 하엿는데 검거인원 일백오십칠명에달하엿스나 금번만은 엄중설유후에 서약서를밧고 석방하여주엇스나 금후로는 엄벌에 처할작정이라한다

전북교원사건공판정 (작일기사참조)

三長署對岸에 共産軍이襲擊

【警務局着電】삼십일밤에 함북삼장(三長)서대안인 안도현오구강서가동(安圖縣五口江徐哥洞)에약사십명의 공산군이 나타나그중십사명은 제재소의가옥(假屋)에잠복하야 삼십일일에 려행자장동구(張東九)외 두명으로부터 금품등을 강탈한후 강안으로출동한다고 호어하엿는데 일일오후 십일시경에 화룡현숭선사웅자구(和龍縣崇善社熊子溝)에 나타나 식사를 강요하야먹고 이일오전일시경에 그곳산림중에잠복하여버렷다 그들은 서이구대옥산동(西二溝大玉山洞)의 집단부락의죽촌(竹村)분주소를습격한다하며 혹은 조선내의 침입을긔도게획하고잇다하야 강안을 엄중경게중이라한다

士兵跋扈激甚과 國境警備新對案

人員은增員치못할形便으로 最新式武器代五十萬圓要求

고천(古川)평북경찰부장은 이일에 경무국에 출두하야 경무국간부와 중요협의를 하엿는데그요건은 최근평북대안일대를 소동시키는 무장단의발호에 대한 금후의 국경방비책과 대연습을 압두고 해외로부터 잠입하는수상한인물의 취체검거의 제일선인 국경의특별경게방침등에 대한 중요한 협의를할터로 특히 무장단 침입에대한 국경 경비의대책에 대하야는 인원의 증가는 물능 함으로 최신식과학적무긔의 구입배치 등에 요할 응급경비 약오십만원의 지출을 경무국에 요구할터이라한다 그리고 이경비오십만원의 전액을 국고에서 지출함은 곤난함으로 평북경찰부에서는 그중일부는 민간의 의연금을 바들모양이라한다 최근 일、이개월동안에 갑잡히 형세가맹렬하여가서 이천리압록강 국경선일대에는 총소리안들리는날이 업는상태에잇서 파면국경경비의 새대책은 이번당국자의협의에서어떠케 결정될는지 매우주목된다

運動資金엇고저 金鑛을襲擊奪金

鄭健和沈富潤等十六名被告

三陟赤農事件結審

【咸興】작년오월중순부터 강원도경찰부의 직접지휘아래 소관삼척(三陟)경찰서를 중심으로하여 린접한수삼경찰서의 응원경관백여명의 일대동원으로 전삼척군내에 깁히뿌리박히고 잇든 적색농민조합원 일백이십여명을 대량검거하여 당시세인의 이목을 놀나게하든 속칭삼척로농조(三陟勞農組)사건 정건화(鄭健和)등 십륙명은 검거이후 팔개월동안 경찰서에서 엄중한취조를밧다가 금년일월 삼십일일에 일건서류와함께 함흥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여 이래 동법원에서 예심심리를밧고잇든중 지난 삼십일일로 예심이 종결되고 십륙명모다 유죄로 결정 되여 동법원공판에부치게되엇는데 전긔십륙명은 치안유지법위반등 수개종의 죄명아래 공판에 회부되엿는데 이사건은 종래의 농민조합운동에서는 볼수업는 사건으로 예심결정서에 나타난 각피고들의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면 피고열여섯명은 모다 보통학교정도의 교육을 바든후 농업、혹은 로동에 종사하는일방 극히 긔초가 공고하던 삼척청년동맹(三陟靑盟)의 간부급으로 소화오년이월 당시 청년동맹을 해소하기로 결의하고 그후 운동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달십칠일 청년동맹집행위원장이든 심부윤(沈富潤)정건화(鄭健和)등 오명이 다시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하여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할것을 결의한후 그운동방침으로 지구책임(地區責任)을 선정하여 정건화(鄭健和)는 남양농조(南陽農組)를 황운대(黃雲大)는 정라(汀羅)로조를 조직하기로 책임를마탓다 그리하야정라농조조직의책임을가진 황운대(黃雲大)는다시 그준비과정으로동년륙월중삼척면 정하리(三陟面汀下里) 김도길(金道吉)방에서 변소봉(卞小鳳)외 수명의 청년을 집합하야가지고 전후이회식이나 『무산자정치교정』이라는 책을교재로하여 공산주의의식을 주입시키엿고 다시동년칠월 당시 가장다수한회원을 포용하고잇든 삼척제우회내에서 의식분자를 획득하여적색 … 에서 의식분자를 획득하여적색 …

개최케하는등 비상한 활동을하여오다가 동년십월말경에 김덕환(金德煥)심부윤(沈富潤)황운대(黃雲大)의삼인이 근덕면 동대하고 전긔단일조선공산당을 조직하는 하부조직인각동리의 리반을확립함에는 위선각동리의 적색로조를 통일지도하는 중재긔관이필요하다고하여 비밀결사케회(K會)를 조직하여 부서를 결정한결과 책임비서에 황운대(黃雲大)조직련락부에는 김덕환(金德煥)으로 심부윤(沈富潤)으로구원부(救援部)책임자로 선정되엿고 다시 지역적으로 심부윤은 북삼면과 근덕면에 농조를 김덕환(金德煥)은 정라항(汀羅港)에 황운대는 근덕면덕산리에 로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되엿다 그리하여 심부윤은 동년십일월중 김도길(金道吉)방에서 변소봉외수명의청년을 집합하여 독서회를개최하되 매주이회식 무산자정치교정을 교재로하여 강좌하엿고 김덕환과 황운대의량명은 동년십월중순 리상인(李尙寅)외수명의 청년과 회합하고 근덕면에적로를 조직하엿다 이와가티 하부조직을 조직한후 운동자금이 부족되어 운동 진전에 지장이 극히 만흠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서는 강탈도사양치안흘것을 결의한후 정건화(鄭健和)、최윤달(崔潤達)、심부윤(沈富潤)등 륙명은 삼척군하장면추동리최모(三陟郡下長面秋洞里崔某)가 경영하는 금광사무소를 습격할것을 협의하고 동년 십일월이일 오후 아홉시경먼저 연초매매인지영덕을 습격하여 현금 일원삼십전을 강탈한후 동시 식도로 전긔 금광사무소숙직 송덕호(宋德浩)를 위협하고 금괴 이백팔십복문메(시가이천이백칠십원)현금오십원을 탈취하고 유유히 돌아와 이후오개월동안 운동자금으로충당하엿다고하며 또한 강원도청에서 조직지도하는 지방자력갱생을 목적하는 명덕청년회(明德靑年會)를 적화하려고 교묘하게 도회원중 주요분자 박모(朴某)를 교사지도하여 회내반대파를 규합하는등시 반제반전의 동맹도결성하엿다

被告住所氏名

三陟郡北三面洒雲里四六五 農業 崔東義(二〇)
同郡三陟面汀上里 漁箱店員 鄭錫大(二〇)
同郡北三面洒雲里六三六 農業 沈富潤(三二)
同郡同面同里三六三 農業 朴來寶(二八)
同郡同面梨島里二〇七 農業 崔泰熙(二七)
同郡三陟面汀上里 鰮油肥工場職工 李開東(二五)
同郡北三面洒雲里七二 農業 鄭健和(二六)
同郡近德面東湖里一五八五 農 崔潤達(二五)
本籍 蔚珍郡蔚珍面邑內里六五四
住所 三陟郡三陟面汀上里七七 鰮油肥工場 職工 朱德煥(二七)
同郡 三陟面汀上里三三七 同 農 卞小鳳(二三)
同郡近德面德山里一一五 農 黃雲大(三四)
同郡三陟面汀上里七四 勞 洪吉星(二三)
本籍 黃海道谷山郡雲中面完井里二七
住所 江原道三陟郡三陟面汀上里 勞 金德煥(二七)
同郡北三面雲洒里 農 鄭根玉(三二)
同所 三四〇 農 崔大熙(二七)
同郡近德面德山里一六二 農 李尙寅(二三)
以上十六名

今曉貞洞에火災

菓子工場가마불의失火로 五戶全燒損害六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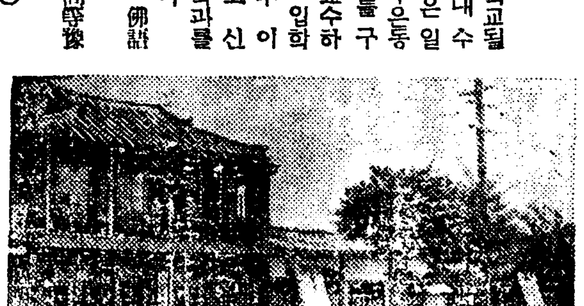
삼일 오전 한시에 시내정동(貞洞)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梨花女子高普)아페잇는라원주(羅元柱)(三二) 과자제조소에서 불이나서 그이웃에 련접해잇는 중국인 장사화(張仕和)세탁소와 조선사람의 경영하는수원(水原)제천상사회사 출장소(堤川商事會社出張所)와 리호영(李鎬泳)대서소등 한집웅미테살고잇든 다섯집을 전소해버리고 소방대의 활동으로 한시오십분경에 겨우 불을잡앗다 그집에는 모다 세드러잇는 사람들로서 피해자는 모다 알몸으로뛰여나왓기때문에 가산과 상품은전부 태워버렷다 더욱이 두세탁소에서는 남의 양복수백벌을 마터잇다가 모다 태워버렷스며 중국인 세탁소에서는 현금일백칠십원 조선사람 세탁소에서는 현금 십오원 과자집에서는 요미레 너어 두엇든 현금 팔십원을 전부 태워 버렷다 하며 대서소에서는 재판소에 제출하려든 소장과 인지(印紙)등을 만히 태워버렷다한다 손해는 가옥과 기타상품 가산을 합하야 륙천원 가량되리라 한다

불난원인은 라원주 과자제조소에서 과자 맨드는 가마의 불을 잘 처치해버리지 안흔 탓으로 이러난것이라 한다 라원주는 불을 피하야 박그로 뛰여나가다가 한창 불이퍼지고 잇는데도 불고하고 금괴를 가지려 집안에 도루 드러갓다가 연기에 취하야 혼도되여 잇는것을 소년군들이 구원해내여 의사에게 진찰을바든결과 한시간만에 소생하엿다한다 (사진은 화재현장)

外語學院擴張

장래에 완전한 외국어학교될것을 목표로 작년중에 시내 수은동에 창립한 외국어학원은 일방유지의 찬조로 시내 교지와 교사를 구매하고 삼백여명의학생을 교수하여오든중 금춘 입학기에 입학지원자가 다수이므로 금추 이학기에 또 기지를 매입하고 신교사를 증축하여 적지 각과를 래십일부터 개학한다고한다

▲科目 英語 中語 獨語 佛語 에쓰페란트
▲부설 數學 物理化學 高等豫備科



(사진은 신구교사)

南大門通電車軌道 道路中央移轉不能

上水道管의地下埋藏物때문에 時急한交通量의調節은無望

경성부윤을비롯하야 부회원과기타 경성부관계자로 조직된경성도시연구회(京城都市研究會)에서는 지난 삼십일에 경성부청부윤응접실에서간사회를열고 여러가지 경성도시시설에대한 문제를토의하얏는데 그중에는 남대문통(南大門通)의 전차선로를도로중앙으로 옴기여 현재와가티 복잡한교통을 완화식히고자 하는 안(案)이 잇섯다

그러나 이번이문제로 인하야 우연히도 경성시내의 상수도(上水道)시설이 애초에 잘못되야 와가튼 도로시설이라든지 기타도시 시설상 적지아니한 지장과 폐해를 끼치게 되는것을발견 하게되얏다 그것은 수도관(水道管)이 남대문통에는 큰것이 길복판에 무쳣기때문에 지금 전차선로를 중앙으로옴기려면 그수도관을 다시옴겨무더야 하게되는바 이러하다면 경비가막대하야 지금경성부와가티 재정이고갈한데서는 도저히 불가능한일일뿐더러 그것을 옴기자면그공사할동안 그부근일대에단수(斷水)를 하여야하게됨으로 불가능한일이고 이것을피하자면 다시 새관을무더서 새공사가 끗난다음에 먼저무든관을 파버려야할터인데 이리하자면 더욱 건설비가 엄청나게들어서 할수가 업다는것이다

그러므로 남대문통도로는 영구히 전차선로를 중앙으로 옴기어 도로사용의 능률을 올리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지금의 복잡한 현상대로 나아갈수밧게 업다는것이다 이것은 종래경성부의 당국자들이 미래경성이라는것을 생각지안코 수도관을묻게된 까닭이라한다

辯護士試驗 合格者發表

총독부에서 시행한 금년도 변호사시험의 지원자 이백삼십오명(그중 조선인 일백륙십팔명)중에 필기시험에 합격한자 구십사명과 예비시험에 합격한자가 구십구명을 합계 일백삼십삼명에대하야 팔월이십일부터 이십삼일 까지에 필기시험을 시행한결과 긔보한바와가티 십일명이 합격하엿다 그런데 구월일일에 구술시험을 시행한결과 다음구명이 합격하엿다한다

大園君雄 金琮奎 金熾 金德俊 金洛源 申淳彦 平木一郞 朴天一 朴元三

往十里幼稚園認可

【京南】시외한지면하왕십리(漢芝面下往十里)에잇는 왕십리유치원(往十里幼稚園)은 지금으로부터 십이년전인 일천구백이십사년삼월에 그곳 감리교회(監理敎會)의 부속긔관으로 설립되여이래 삼백여명의 보육생을 내인 한지면내에 유일한 보육긔관으로 작년부터 이를 그동리의독지가인 리덕윤(李德允)씨가 감리교회의 손을떠나 단독으로인계하여가지고 백여명의 원아를수용한 원사까지 신축하여온후 한편으로는 경긔도 학무과에다가 인가원을 제출하엿섯는데마침내 지난팔월삼십일부로써 정식인가가 되여서 동유치원후원회에서는 오는칠일에 그에대한 축하식을 거행코저 방금준비중이라한다

大量火藥注文品 途中에서雜品을替換

石炭粉과海草等屬으로改卜

咸南警察部失色調査

【咸興支局電話】함남신흥군(咸南新興郡)에서는 약 이주일전에 일본내지 모공장으로 다량의 화약(火藥)을 주문한일이잇서 얼마전에 현품이 도착하엿슴으로 짐을 풀어본즉 화약은 조고마치도업고 그대신 석탄(石炭)가루등 잡동산이만을 조심성잇게 담어잇섯다한다 이괴사실을 알거된 신흥경찰에서는 즉시 도경찰부와 협력하야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중이라는데 전긔화약의 포장속에는 원산근해(元山近海)에서 나는 해조류(海草類)가 잇는데 그는 해조류로서 원산 부근에 범인이 잇서 도중에서 밧구어 너흔 혐의가 농후하야 지난삼십일에 함남 경찰부 에서는 류(柳)경부 한(韓)경부 청목(靑木)양형사부장이 원산에 극비밀히출장하야원산서원과가티 모방면에 맹렬히 수사하는 중이라는데 절대비밀에 부침으로 자세히는알수업스나 이가티 다량의 화약을 도중에서 분실한사건은 근래 보기드문 괴사건임으로 자못 중대시된다

筏夫로變裝코 住民을拉去

渭原對岸에反滿軍

【警務局着電】이일오전 칠시경에 평북위원(渭原)서의 천출(川出)주재소의 대안인 즙안현림강구(輯安縣林江口)에반만군림보안(林保安)의부하 구명이 침입하야 두대에나노여 일대오명은 그곳 산우로부터 발포하야 그곳파출소를 견제하고 일대사명은떼ㅅ군(筏夫)으로 변장하고 그곳에 잠입하야 상인 왕림운(王林雲)(四二)과 그집고용인 리환문(李煥文)과 서영곡(西永谷)의유력자 염향춘(閻香春)(三七)의세명을랍거하여가지고 제삼구 황차(荒岔)방면으로 도망하엿다 림강구 파출소에서는 무장단의침입을 탐지하고 망루(望樓)우로부터 발포하야극력 격퇴를식히엇슴으로 무장단은 아침일곱시사십분경에 라팔을불면서 두대가합체하여가지고 별로 도망하엿다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颱風은 小笠原島南方約二百키로海上에잇서서 中心七三六미리로 北北西로 進行中에잇다 그情況은不明、小低氣壓은 紀州沖과 能登沖에잇다 高氣壓은 千島南海上과 朝鮮으로퍼저서잇다 滿洲、朝鮮은晴 日本內地는 흐리고 中部地方은 處處에비가오고잇다

昨日最高 三一、〇 昨日最低 一九、〇 今日正午 二九、七

運動競技

中等柔道 申請은十二日限

留學生武道會主催

在東京留學生 武道會主催의 第七回 全朝鮮中等校 對抗柔道大會는 來 九月十四日 正午부터 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 運動室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希望校는 選手五人、候補二人을 明記하야 十二日 午後四時까지 在校正選手 中央基督靑年會館事務所로나 鍾松洞朝鮮研武館에 申請하기를 바라며 抽籤은 同十二日午後 五時에 中央基督靑年會에서 行할터이라한다

中央基靑拳鬪 大連서快勝

【大連】本社天津支局 主催로열린 國際對抗 拳鬪戰에 勝捷한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拳鬪部一行 八名은 當地 新東洋拳鬪會와의 對抗戰을 九月一日 午後七時부터 滿鐵協和會館에서 盛大히 擧行바 在留同胞의 熱狂的應援裡에 드듸어 四對三로 基靑軍이 快勝하엿다 一行은 二日出帆의 共同丸으로 歸國하엿다

【基靑軍】 【大連軍】
○洪淳奎 判定 河原 幸男×
×林勝進 判定 是枝 正安○
×尹炳鎬 判定 松尾 操○
○裵淵道 判定 오노 띠까×
○崔龍德 判定 中原 森男×
▲權重龍 無勝 피어비스킹▲
○洪在浩 判定 森修 平×

學生籠球 廿五日부터四日間

新秋籠球界의 豪華陣！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一回 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는 來廿五日(水)부터 連四日間(午後二時부터)鍾路靑年會館에서 열리게되엿는데 參加希望校는 二十日午後四時까지 參加金(中等校二圓、專門校參圓)을 添付하야 主催側에申請하기를바라며 競技時間은 每晩三十分、準決勝부터四十分間을 行하기로 되엿다

徐君과對戰할 『비네더』鬪志滿滿

來七日 東京서열리는 徐廷權君과 歡迎拳鬪戰에 出戰하야 徐君과 雌雄을決할 世界밴텀級第八位의 『그리스·비네더』(比島)選手는 方今 芝公園의 瑞穗拳鬪道場에서 猛練習을 거듭하고잇는데 『비네더』選手는 이미米國에서 徐君과 對戰하야 判定으로 惜敗한 뒤이라 雪辱의 意氣에 불타며 鬪志가 滿滿하야잇스니 徐君도 相當한 警戒를하며 決戰의날을 기다리고잇다 (寫眞은 비네더選手)

中等對抗陸上 二十二日에開催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二回京畿道男子中等學校 對抗陸上競技大會는 來二十二日 午前十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릴터인데 諸般規定은 다음과갓다

▲競技種目＝百米、二百米、四百米、八百米、千五百米、五千米、高跳、低跳、八百米繼走、千六百米繼走、投圓盤、投砲丸(十二封度)投槍、走幅跳、三段跳、棒高跳▲等級＝各種目에五等까지(但繼走는三等까지)▲得點＝各種目에 一等五點、二等四點、三等三點、四等二點、五等一點(但繼走는一等五點、二等三點、三等一點)▲出場資格＝道內男子中等學校所屬選手로서 今年度日本陸上競技聯盟登錄한者 ▲出場規程＝選手는 一校에一種目四名으로하고 繼走는不制限(但繼走는六名) ▲申込所＝京畿道體育協會 ▲申込期日＝昭和十年九月十二日까지 京畿道陸上競技協會

京畿庭·卓球豫選

第十一回 神宮軟式庭球及卓球京畿道豫選會는 八日午前十時부터庭球는 京城運動場코-트、卓球는城大醫學部卓球場에서 各各擧行할터인데 參加規定은 다음과갓다

▲申込方法＝九月五日까지 現住所、姓名、年齡、職業及出場種目을明記하야 參加料一人三十錢을添付後 京畿道地方課內京畿道體育協會로 申込할것

▲選手派遣＝豫選結果 成績優秀한選手에 對하야서는 本會에서旅費를補助하고 本道代表選手로서 大會에派遣케함

▲本豫選會에 入選한者의 神宮競技大會參加料는 當協會에서負擔함

京畿道陸上豫選 九月十五日京運서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京畿道陸上競技選手權大會兼神宮京畿道豫選會는 來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릴터인데 參加規定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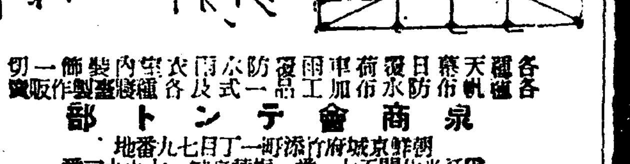
▲競技種目＝百米、二百米、四百米、八百米、千五百米、五千米、一萬米、高跳、四百米障碍、四百米繼走、千六百米繼走、八百米障碍、走幅跳、投槍、投圓盤、投砲丸、三段跳、走高跳、棒高跳(但中等學校除外) ▲出場資格＝今年度日本陸上競技聯盟登記者(一般과 中學生은 大學專門學生을不論하고) ▲申込期日＝九月五日까지 ▲申込所＝京畿道地方課內 京畿道陸上競技協會

資生堂洗濯石鹼

자생당세탁비누

本品의特徵！
一、最高의品質、最低의價格
一、芳香、거품이極히佳良
一、손을안것칠게、살결은안傷하게
一、洗濯後에不快한내음새안나고 쓰기조타

東京·銀座 資生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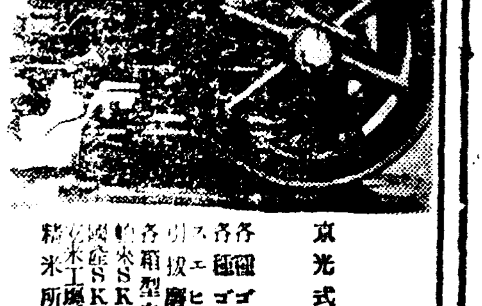
各種天幕 日覆 荷車 雨覆 防水布 衣類 室內裝飾 一切
各種帆布 防水加工品 一式及各種製作販賣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九番地
電話光化門五七一一番·振替京城一七九二番

OKEH 新民謠 오늘에流行하는 압강물흘러、 獨唱 李銀波 오케―레코―드(一七九六番)

들으라！ 이四大傑作盤!!

蔡奎燁傑作盤
순풍에돗달고
아득한千里길
녹쓰른비티
외로운길손

콜럼비아레코―드



京光式 精米機 搗米機 製粉機 發動機
各種ゴムロール 各種ゴムベルト スエヒロ米選機 各種研磨シャフト 自動メタル SKFベアリング NKベアリング 精米所設計請負一式

京城府西四軒町七一 (國際旅館前)
李光淑鐵工所
京光社營業所
主 李光寶
電話龍山九六二番
振替京城一三八一五番
電略(ケ)又ハ(ケイ)

家庭

현대의화장미는 빗갈보다 선으로

얼굴이 돋보이고 안보이는 것은 오즉 분을 바르고 베니를 칠하는 데만 퉁가이 부른 줄 아시지만 실상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관계가 만흡니다. 위선 광선을 착각지 안 해서는 못 쓸 것이니 광선에 딸아서 얼굴이 의외로 고와도 지고 미워도 진답니다. 예컨데 정면으로 광선을 바더서 원 얼굴이 환하도록 해 보십시요. 얼굴이 명절해 보이지를 안씁니까? 다시 한번 모으로 광선을 바더서 얼굴 한쪽만 환하도록 해 보십시요. 얼굴에 모가 나 보이지를 안습니까? 그러니까 다장할때 예초부터 광선관계를 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가 크고 팡대뼈가 내밀고 입살이 두둑해 보기 실키나 얼굴이 쪼그라저 주름살이진 분도 의외로 가름한얼굴에 한맵시를 내실수 잇사오리다

얼골을돗보이게하는미용술 「명암」을잘리용할일

니까? 더구나 내얼굴을 내가 맨들어 가더라도 좀더 생각을 하고 좀더 실험을 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이뻐도록 맨들어 가서야 할 것이 아니겟습니까? 보선ㅅ본이나 초끼ㅅ본 모양으로 얼굴도 분을 내노하야 할 이니 방안지(方眼紙)라고하

[illegible] 얼마나 나온것이라든지 팡대뼈가 얼마나 내민것이라든지 모다 그리어 놓고 그위에 어울을 가지고는 얼굴이 넘마다 물리지 안토록도 하려니와 좀더 아름답고 이뻐도록 연구로 빼여갑니다. 누가 얼른 드려다 보고 알지 못하나 그런것을 하고잇게하고 가정부인들은 반대하실는지도 모르오나 그야 그것을 권문으로 하시라는 권고는 안입니다 요사이 해롱해서 분세수로 꿈를 하시면서도 크구 망칙하게 맵시를 내노흐시는 분이 업지 안한터라 그런분께는 얼굴ㅅ본이 절대로 필요치안할까하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영화배우들은 전부다 자긔의 얼굴ㅅ본을 가지고 잇다나요 그래서 작구작구 자긔 얼굴을 연구해서 그결점을 보충하고 장처를 존중하게 하는 것이지요

×

얼골 넙적한 얼굴을 가름하게 보이자면 러케나 귀밋께나 얼굴의 가장넓이근분을 진하게 바르고 눈으로부터 빼까자 얼진선이 자도록 베니를 칠해 둡니다. 코와 반대로 길다란 얼굴을 동그스름하게 보이자면 딸꼭, 예마우 아래우로 분을 약간만 바르고 귀미테서부터 빼까지 비스듬이 베니를 칠해 나려옵니다.

코 가 벌룩하거든 코초리와 눈초리의 사이를 어둡게 맨들고 그 반대로 코가 좁거든 코끗을 하게 맨듭니다. 그리고 코의양쪽은 눈으로부터 입께까지 고랑이 젓거든 입귀근처에 분을 조금 발러야 그 고랑이 두드러저 보이지를 안슴니다.

눈ㅅ섭 긴업꼴에는 기름하게 맨들고 넙데한 얼굴에는 동글게 맨듭니다. 눈ㅅ섭을 뽑으로 깍거버리고 먹으로 그리는 분도 잇스나 사진을 백일때는 민패로 돼 나오기때문으로 아조 재미가 업스니 눈섭을 다까끈것이 아니라 가장잘이만 비고서 얼골에 마치어 그리는것이 조습니다

× 그러나 날마다 근사한얼굴을 맨드서야지 오늘은이러코 내일은 저래서야 습

빠케쓰오래쓰는법 (안쓸때에는물기를 업시해두어야된다)

빠케쓰는 어떤가정에서든지 중요한 부엌그릇으로 업지못할것 임은 더말할 필요도업는데 빠케쓰가 엇재서 속히 못쓰게되느냐하면 쓰시는분이 주의하지안는까닭입니다 빠케쓰는 물을붓지안코 두어둘때도 밋바닥에 물긔가남아잇서 거기에서부터 녹이나기시작하야 나중은 구멍이 뚤려집니다 그럼으로 쓰지안을때는 물ㅅ긔가업도록 잘 훔처서 껍구로 업퍼노와두면 녹이 나는가 구멍이 속히나지안슴니다 그리고 구멍이낫때는 못쓸 것으로 돌리지마시고 풀솜으로 구멍을막아두면 오래동안 그대로 잘 쓸수잇습니다

방수액맨드는법

옷을싸두는데는 깃무명보재기로
방수법을써서하면 걱정은도모지업다

옷장에 옷을너허둘경우에 깃무명보재기에 싸두면 습기가덜타서 곰팽이가잘안피게됩니다 그런데 이 깃무명에다 방수법(防水法)을쓰면 그효과는 더리상적이되는데 이방법을 소위투기성방수법(透氣性防水法)이라고합니다

◇

필요한약품은 조산연(醋酸鉛) 세탁비누 백반(明礬)이 세가지입니다 조산연(醋酸鉛)이라고도하는데 약방에서 사실때는 공업용(工業用)으로 달라고하십니다 그릇은 사기입힌대야두개, 보토대야한개, 물이대두한말들 드러갈수잇는 나무통두개。

◇

먼저 제일액(第一液)제이액두가지를맨듭니다 제일액은 물한되한홉에 세탁비누 한냥엿돈중을녹여 깃무명보재기가 잠길만큼분량을 만드러둡니다。 제이액은 물한홉가량에 백반을 두량닷돈중을타서 물한홉에 조산연두냥닷돈중타서 혼합을하면 하ㅣ야케 변하는데 이물을 잠시두어 흰것이가라안께한뒤 우의맑은물 (이것을 醋酸鉛미나 液이라고합니다)만 따라서 영시보재기가 잠길 분량만큼 준비해둡니다

◇

방수법을 시행하기전에 먼저깃무명 보재기를 때업시 깨끗이 씻은다음 제일액에당거 주물러 살며시 짜서 멍석가튼데 펴서 꾸덕꾸덕하게 말립니다 이러케마른다음 이것을 제이액에당거주무럭거려 십분가량 당거두엇다가 꺼내어 살며이 짜가지고 주름을 펴면서 말리면 그만입니다。

늑대는 조선의외만한 산ㅅ골에서 다니는 맹수의 일ㅅ종입니다。 생김새가 개와 방사해서 얼른보면 시골개와 조금도다를것이 업습니다마는 희고 매서운 눈ㅅ동자며 털이 북술북술한꼴이 유심히보면 다른듯합니

벌서약혼까지한 늑대와쉐퍼ㅡ드
깨무는힘세기로는「하이에나」

다 이늑대는 이리(狼)의 종류인데 도야지도 무러가고、닭도무러가고、엇던때에는 어린애도무러가고 어른한테도 달려드는사나운즘생입니다만 창경원에서어려서부터 기른늑대를보면 사람에게 여간잘따르는것이아닙니다

현재에 창경원에는 일반에게 구경시키는늑대외에 따로 길드린늑대가잇는데 그것은 동물원사무실 구내에잇는 철망속에 잘 모서두고 가끔 계원이 개처럼 끌고다니며 운동을식히는데「이것이늑대요」하고 설명을 하기전에는누구나 개로알밧게업습니다 한가지 또 자미잇는 사실은 늑대가 갓나엇슬때 어미를 떼여개와가티 키우면 엇더케될까하고 시험을해본것입니다ㅡ사무실에키우는「쉐퍼ㅡ드」가 지난삼월보름날 새기를낫코 늑대는사월삼일날새기를 나핫는데그두새기를 한군데 두어길러본것입니다。「쉐퍼ㅡ드」란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입이뾰조하고 귀가 뻣죽해서 늑대와비젓한점이좀만습니까。맨처음 늑대새기만두마리잇섯는데 그중의한마리는 젖배를 아라죽고 혼자외로히 잇는판에 개새기를 가처다두니까

자기의 형제로 여간반가워 하지안혓다 합니다사실로 지금껏 정답게 지나는데지금도 철망바갓 나무그늘에철줄로 목을 매여가지고 두리서히롱하는것을 기자는보고 왓습니다 그러나 천성이란할수업습니다 낫선사람이 가차히 가니까쉐퍼ㅡ드는 가만히서서 짓는데 늑대는 피해다라나라고애를부등부등썻습니다

이늑대는암컷、개는수컷인데 원만하게자라면 동물원에서 결혼을 식혀서 그중에서나는 새기구경을해볼작정이라합니다。 이두가지 즘생이 (개의조상을 늑대라고볼수잇습니다만) 과연 부부생활을할찌? 요전번 경험에의하면 개가늑대를 피하드라고하니 이동물의세계에도 국경이잇고 민족관념이 단단한모양아닙니까?

◇

요다음ㅅ번에 이야기하랴합니다만함경북도서 나는개승냥이(犬山猫)라는 맹수가잇습니다 몸집이 개만한것인데 사람을무러가는일은 업스나 산중에서 사슴과노루를 닥치는대로 잡아먹는 날센 동물인데 창경원에서 한번은 철망을 중간에두고 이개승냥이와 늑대가 다툰일이잇습니다。그때、개승냥이가 실ㅅ수를하느라고 철망구녁에 발을너헛다가 늑대에게물려 대부상을당하엿다합니다。장원과장되는하군산(下郡山)씨는 이야기를 하면서 허를내둘릅니다

『조선의늑대는 여간내기가 아닙니다!』하면서

『하이에나』라는동물도 역시개처럼생겻는데 인도와『아푸리칸』에서 나는맹수입니다 사람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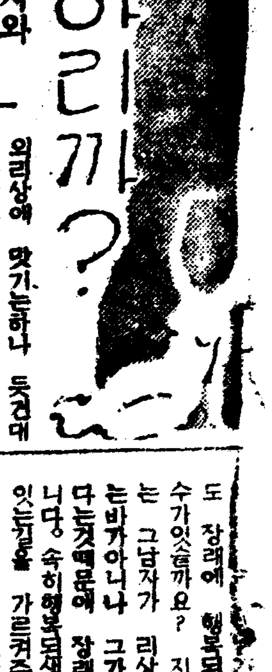
구지덤벼들지는 안는모양이나 이놈의 이빨이 세기로유명한 다들리면 떼지업시 사람을해낼데 시사나호랑이가튼 무서운맹 것은 틀림업습니다。이동물은어 수들이 증생을잡아먹고 떼또티 먹을수업서서 남겨노흔 뼈다구를 깨무러먹고산다합니다 세상업시 단단한증생의뼈라도「하이에나」의 이빨에 걸리면 으드득!하고 바스러지고 만다합니다 이증생은 사람하고 원체 인연이먼탓인지 결코 사람을따르지도안코 따라서 길들지도안는 모양입니다 웬만한 동물들은터려사람을 말끄름이 봅니다만이『하이에나』만은무엇을그리찻는지 해조일철창속을 밤부게 왓다갓다할뿐입니다

◇

늑대는요전까지 쌀밥에 감자와 북어만먹엇는데 지금은 고기를하로 이백사오십몸메식먹이기도한다합니다

『하이에나』도 가튼분량의소고기혹은 닭고기를먹이는데 닭은뼈재준다한답니다 끄트로 그들의몸ㅅ갑ㅡ늑대는 색기쩍에오원 큰놈이래야 사십원『하이에나』는 인도산인데 일백칠십오원에 사드린것입니다 대정삼년에 딸려와서 그동안 색기를 넘번하다가 무사을 햇다나요

◇사진은=상은『대、중은늑대새끼(오른편)와 쉐파ㅡ드새끼、하는『하이에나』의뒤몸



어찌하리까?

한번리혼한남자와 결혼해도괜찬흘가

問 저는 금년이십이세된 처녀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엇던사람의 소개로서 어느남자와 혼담이낫습니다 그런데 상대되는 사람은 모든것이 저의리상에 맛기는하나 듯건대 그사람은 어려서 부모의 명령에 쪼차서 결혼하엿스나 부부간에 애정이 업슴으로 그동안에 네식구이까지 나엇스면서도 리혼을 하엿답니다 그러나 지금상대편에서는 저와결혼하기를 작고만 재촉합니다 도 장래에 행복된생활을 할수가잇슬까요? 지금저생각에는 그남자가 리상에 맛지안는바가아니나 그가 리혼햇다는것때문에 장래가 엇더될넌지 모르겟슴니다。속히행복된생활을 할수잇는길을 가르켜주십시요。(京畿道一處女)

리혼햇다할지라도 사람에달렷겟지요

答 이당신과 혼담이잇는분이 무슨리유로 리혼을 하엿는지모르나 그가 리혼을 불행한결과이엿고 단순할수는업습니다。가령 그사람이 마음이 온전치못하여서 어떠한여자와도 일생을 행복되게살수업는 부랑자이라면 한번리혼하엿스니까 그다음에 또리혼하는것쯤은 엇지안흔것입으로 그러한 남자에게로 시집을가는것은 스사로 불행을 취하는것이지마는 또한 그사람이 아모리 정직하고 양전한사람이라고할지라도 천치되는사람이 허물이만허서 도저히 일생을 살수업섯슴으로 리혼을 하고 다시 행복한가정을 만들어지고 평화스러운 새생활을 창수도잇슬것입니다。그럼으로 지금 당신의리상에서는 그사람이 맛다고할지라도 조용한사람이니까 그러면 결혼한사람일지라도 결혼해도 조흘것입니다。그러나 한가지 주의할것은 숙당에 엄격한 관계가 업어도 한가지불행한점은 모르는 말도잇슴으로 그사람은 한사람의 안해를거느리고잇든 현이잇는데 당신은아직 숫처녀이니까 그사람이 만와 낫 쓰고속으로는 이리와가튼 마음을 먹어야 가질수잇는것입니다。그럼으로 당신은꼭지서 그사람이 엇더한 사람이라는것을 알어보려고 하지말고 당신부모와 상의해서 그사람이 엇더한 사정으로 리혼하엿스며 그사람의 소행이나 그사람가정의 가풍가튼것을 충분히 조사해보고 아시돌만하거든 승낙하시오(一記者)

=선키가요뿐!=

이사진 맨압해 잇는사람을 안친것이라고 보지낫가?천만에요、발궁치를재겨 되여서도 올둥 박게는안됩니다

이사람은 황성옥(黃性玉)이라는 만주(滿洲) 사람입니다 나이는 사십팔세인데 신장이 겨우 이척팔촌이고 체중이 칠관칠백「몬메」밧게는 아되나 식량은 보통사람과 가틉니다 세살후경이나 해보겠다고 집을 떠낫는데 공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진은 왕서방이 봉보 원개(開原)지국을 방문햇슬때 박인것입니다)

世界文藝童話集

獨逸위ㄷ헬름·하우푸作

학이된잉금님 ⑥

崔秉和

004523

입금님은 잠간동안 생각을하고나서 부엉새공주를 황후로데려가기로 하엿습니다。부엉새는 펄ㅣ깃버하엿습니다。그리고 오날밤 마법사들이 모히기로되것을 이약이하엿습니다。

부엉새는 두마리학을 넓은방으로 안내하엿습니다。어두컴컴한 마루 저편끄테 다 허무러진 벽틈사이로 빗치 새여나오는 방이 잇섯습니다。 세사람은 벽구녕으로 그방속을 드려다보앗습니다。

넓은방에는 수업는 램프불이 대낫과가티 환하게 켜저잇섯습니다。한가온데 동그란테불우에는 진기한음식들이 벌녀저잇섯습니다。가장사리 의자에는 여덜사람의 사나히가 안저잇고 그가온데는 마법의가루를 팔려온 장사치가잇는것을 학들은 보앗습니다。그중의 한사람이 장사치에게 요사히 해내려온 일을 모ㅣ다 이약이하라고 졸낫습니다。그래서 장사치는 잉금님과대신의 이약이를 하엿습니다。

『자네는 대관절 그놈들에게 무산밥을 처어주엇나』하고 다른 마법사가 무러보앗습니다。그러니간 장사치는 한층뽐내면서

『펴어려운 라텐말이다。무다보루 라는것이다』

五

학들은 벽구녁에서 이것을듯자 너무깁버서 깟딱하엿드면소리를 낼번하엿습니다。갑작이문으로 뛰여갓으므로 부엉새는뒤에서 쫏차갈수가 업슬듯하엿습니다。그리고 잉금님은 몸둘떨면서 부엉새에게 말하엿습니다

『당신은 우리두사람의 구세주입니다。나의황후가되여서 대궐로가십시다』그라고 동쪽을향하야 곳치서서 두마리학은 마친산에서 떠올르고잇는 해ㅅ님을향하야 세번절하고 그리고 무ㅣ나보루!라고 부르지젓습니다。

그러니간 학의몸은 갑작이 전과가티 사람으로 되엿습니다。

죽음에서 사러난듯한 깃봄에 왕과신하는 서로 끼여안고 옷기도하고 울기도하엿습니다。그리고 무심코 뒤를도라다보니간 여간놀난것이 아니엿습니다。훌륭한비단옷을입고 눈이부실듯이 아름다운왕녀가 두사람압헤 서 잇지안켓읍닛가 방긋방긋우스면서 잉금님에게 손을내밀고 말하엿습니다。

『잉금님께서는 그부엉새를 몰르신니까』그것은 부엉새가되엿든 왕녀입니다。

그리고 세사람은 함께 바그닷드를 향하야갓습니다。입금님은 자기 옷속에 그마법가루가 드러잇는 궤짝만아니라 자긔의 돈지갑이 드러잇는것을 하시고 다음동시에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엿습니다。

이리하야 업마안되여서 세사람은 바크닷드로 드러왓습니다 여러백성은 잉금님이 먼곳에서 도라가신줄만 생각하고 잇섯스므로 입금님을 뵈옵자 크게깃버하며 마지하엿습니다。

백성들은 대궐로 몰려와서 가순들과 그의 아들 미드라를 붓잡아 가두엇습니다。잉금님은 가순들을 왕녀가 부엉새가되여서 가치여잇든 성으로 데리고가서 그곳에서 죽여버리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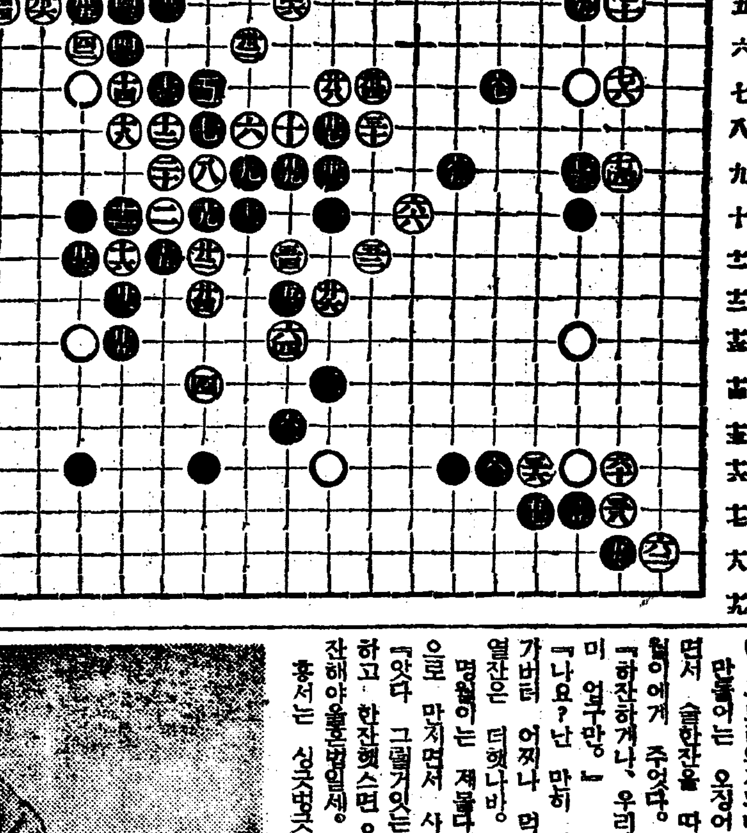
미드라는 저의 아버지와가티 마법을 모름으로 죽는편이나냐 그러치 안흐면 마법의 가루를 맛는편이 조흐냐 어느것이든지 너의 조흔 편을 골나라。 아들은 나중것을 골낫슴으로 대신은 마법사아들에게 가루를 마드게하고 학으로맨드러 바리엿습니다。그리고 잉금님께서는이것을 쇠장속에너어서 뜰에두시엿습니다。 (끗)

圍碁對局譜 ＝5＝

(本社) (主催)

白 閔仲植
黑先 丁奎春

【●六一】己의十六
【○六二】乙의六
【●六三】子의十五
【○六四】子의十四
【●六五】庚의九
【○六六】辛의十
【●六七】己의七
【○六八】丙의四
【●六九】丁의五
【○七十】丙의五
【●七一】丙의三
【○七二】乙의三
【●七三】丁의三
【○七四】丙의九
【●七五】丁의九
【○七六】丙의七



◆蔡極文氏評 黑이 中央陷落함을 憤慨하야 智勇을 發揮하고 庚의 十六將을 若干 修補한 후 丁의 七白將包圍함 秘策으로 庚의 九로 弱點을 試하고 己의七로 白是明見이라 丙의四 黑將脂後를 壓하야 先次圖生하니 黑의 緊路가 定在何處인고 牧之桑楡를 一次極力할지어다

家庭醫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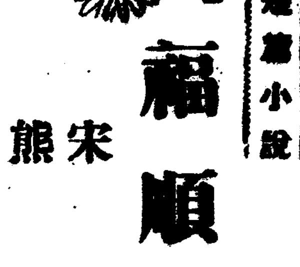
불감증

問 금년 이십구세된 여자이온데 칠년전에 결혼하야 남매를을나엇습니다 결혼당시 약일개월간 엇전지 우울로 신고를 겻다가 나종에는 히스테리에 걸렷습니다 그후로는 불감증에걸렷습니다 치료하는 방식과 약품을 자세히 가르켜주시요 (熊川 一讀者)

答 정신과의사의 치료를 바드시고 히스테리증세를 곳치십시요 히스테리증세가 업서지면 불감증도 동시에업서질것입니다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顯模)

連載小說 福順이 (5)

宋影作 熊超畵



『한잔식 드시오』

하고、명월이는 두사람을 번가러본뒤에이엇다。만돌이는 잔을 들어다 코를 콱 찌르는듯한 소주ㅅ내를 먼저 마터보고 나서 입을 대 벌리고는 술을 목구녕으로 꿀꺽이엇다。그대신 홍서는 두입에을 꼭 담은것처럼 술잔을 빠려마시엇다

『과연 시원하다!목구녕이 담박 부드러워지는구나』

만돌이는 오징어조각을 씹으면서 술한잔을 따러가지고 명월이에게 주엇다。

『한잔하게나、우리만 먹으니 재미 업구만』

『나요?난 만히 먹엇서요、악가버터 어찌나 먹엇는지 아마 열잔은 더햇나비。』

명월이는 제풀ㅅ대구니를 제손으로 만지면서 사양햇다。

『얏다 그럴거잇는가、다른사람하고 한잔햇스면 우리하고도 한잔해야올흔법일세。』

홍서는 싱긋허해가면서 가느단 눈으로 명월이를 바라본다。만돌이의 검고、울툭불툭하고、게다가 옹퍼드러간 왕방울가튼 눈을 보다가、홍서의 갸름갸름하고、볼다구니가 맨질맨질해보이는 얼굴을 보면 누구든지、초갈보로는 홍서를 미남자라고할것은 물론가지엿다。명월이는 못이기는듯이 술잔을기우렷다。

『갈독이란새기 말이야ㅡ』

이러케 만돌이는 말을 끄내엇다。

『그색기나만보면 눈깔을 흘긴단말이지。악가도 자네도 보앗지만 그색기 날만보면 못먹겟다니 무슨까닭인지 자비 아는가?』

그는 조금전에 감독의 자긔를보고 눈흘기든일이 이저지지안는 모양이엇다。

『일하지안코 이야기한대서그색기 눈깔이 불량햇던것이겟지오』

『고등울때가 다ㅣ돼서이야기좀 하는것이 어떠탄말이?』

만돌이는 홍서의 설명을 맛치 감독의 꾸지람이나 듯는것가티 생각하엿는지 눈을불량하게 뜨고 바라보면서 대드럿다

홍서는 만돌이가 들고잇는 잔에 술을 따르면서、

『형님 노하지마시오。내가감독이란색기、그래서 그러햇든것 갓다는말이지 그랫스니까 형님 잘못이란말이 아니오……그러기에 감독녀석 눈깔만 흘기엇지 무슨말 할려이까?』

하고、저도 제술잔을 빠려다

『그래、그러기는 햇지。그러치만 그새기가작년에 시비가 이러낫슬때 내가 안장섯댓서ㅡㅡ사실은 내가 안장설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들어갈때 고운뎃사람이 압혀스럽해서 그때만 안장섯드랫이지ㅡㅡ그래서 나를 못먹겟다고 하는모양이야……제가 그러는거、내가 몰르나!』

『작년에 이평산 긔거ㅅ일시작한지 얼마안되서 말이지? 그때 시비 때문에 고전이 얼마식 올럿다지오?』

『그럼!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안된다하다가 어데 딴팡부들어더볼수잇서야지 그래서 결국오전식 고전을 올렷지 오십오전짜리가 그래서 륙십전 됏지』

만돌이는 탈을 것고서 다시 새로가저온 술을 들어마섯다。

아랫칸에서는 주재소 순사와 벙서 세번째두번식가저온술이다 K동리사람이 아닌듯싶흔 낫모를 사람 두사람이 무어라고짓거려 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쉴새업다 그방으로 건너가고 만돌이와 홍서는 서로 술을부어주면서 마시고잇섯다。

『누구일가? 무얼하는 사람들 일가?』

한참잇다가 만돌이가 아랫칸 장지를 터끄트로 가르치면서홍서를 바라보앗다。

『글세……이동내사는사람은 아닌데。금광발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겟지오。』

『흥!』만돌이는 코똥을 하고서『너ㅣ마니……나도 금광이나 상능가는 놈을 한개 발견햇스면 이서름 저스름 다ㅣ이저버리고 잘 살겟다마는!』

하고 한숨을 지엇다。

『쉽잔은소리! 부자됏드면 잘살겟다는 말이나 한가지 말이지……우리팔자에!』

두사람이 이러케 주거니 밧거니 짓거리고 잇슬때 문바게서『야ㅣ 긴상、저히집에를 다 오시고……오까와리와 고사이마세까』하는 소리가 들리엇다。마당으로 난 밀창문박게는 명월루주인 할줌신이가 아래칸을 들여다보고 짓거리는 소리엿다

『여、이쓰모 아이가와라즈……』

그런데 쇼ㅣ바이 재미가 조흐십니까?』

하는、방안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주재소 순사엿다。

三日 (火曜)

午後六時二〇分 아코ㅣ듸온獨奏 一、양키ㅣ두ㅣ들 二、오ㅣ스산나(퓰라리벨) 三、古歌 四、픽시ㅣ랜드(퓰라리벨) 五、올ㅣ드 블랙ㅣ죠 六、나의계린키ㅣ와엘집 七、올ㅣ드 포ㅣ크스、애든홈 아코ㅣ듸온 金文星 풀라리벨 韓寧甫

◇同六時三五分 經典解說(一)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illegible]講話 …와 洋服의常識 金東成

◇同八時 歌謠 一、길손 二、… 春眠曲 金東寰 高載德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一、… 二、支那의… 三、… 女…니ㅣ망作曲 會 코ㅣ르라

◇同九時 連續講談 奉天의달(一) 朴寅成

四日 (水曜)

◇午後〇時五分 (東) 新日本音樂 一、가을의番 島原茂作詞 宮城道雄作 一部 牧瀨數江 同 平田幸子 二部 松尾貞江 二部 安齋龍子 十七絃 白川光子 二、武藏野의番버레 磯部艶子作詞 宮城道雄作曲 箏、牧瀨數江 三絃 松尾貞江 三絃 安齋龍子 尺八 片山雄山 三、적은새의노래 宮城道雄作曲 箏 牧瀨數江 尺八 片山雄山

◇同二時 家庭時間 新學期를當하야 李應淑

◇同六時 連續라듸오어린이小說 (一) 포도街의少年團 모르나ㅣ르作 朴泰遠譯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二)十善業道經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講話 都會偏重과農村問題 裵成龍

◇同八時 流行歌 一、情恨의버들 二、봄타령 三、懷抱千絲 四、돈바람분다 五、白蕎薇 六、피눈물 姜石燕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連續講談 奉天의달(二) 朴寅成

五日 (木曜)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同二時 家庭講座 손님接待하는法 (一) 宋今璇

◇同六時 連續라듸오어린이小說 포도街의少年團 (二) 모르나ㅣ르作 朴泰遠譯

◇同六時二五分 衛生講話 流行性腦脊髓炎 高永珣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 緬羊獎勵에對하야(一) 金玉鉉

◇同八時 映畫劇 銀河에흐르는情熱 安鍾和原作 李雲芳脚色 라듸오프레이、미ㅣ평 演出 朴珍 効果 金聖雲

【配 役】

白淳英(學生)……徐月影
白貞媛(淳英의누이동생)(女學生)……姜石燕
白氏(淳英의하라버지)……朴齊行
陳傑(淳英의親友·貞媛의戀人)(學生)……金聖雲
鐵洙(淳英의親友)(畵家·學生)……尹星畝
張燕淑(淳英의戀人)(學生)……金仙草
張氏(燕淑의父)(金融社社長)……李素然
蓮鄕(燕淑의繼母)……朴仁淑
金仁鎬(張氏의信任밧는社員)……尹東洙
仁順(貞媛의동무)(女學生)……金蓮實
玉鄕(貞媛의동무)(女學生)……朴今順
下女……申時雨
解說 卜惠淑

◇同九時〇分 音律 一、平調會象 二、吹打 三、與民樂 玄琴 金甬塘 洋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杖鼓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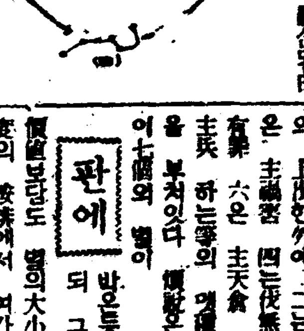
夏天星象

"臨制四方"의北斗
紫微垣外의明朗한七星
(7) 安在鴻

天市의西 天市의北 織女의西로『헤리클레쓰』星座가 잇스니『헤리클레쓰』는 希臘上代의 愛國的大偉人이라 그별은 天市北端인 河中 河間星으로부터 天紀까지 女牀과 天紀星群에 치렁대는 神父服을 입은듯한 治裝을 드린者이니 大體로 三等星以下의 별들이오 A星은 變光星이오 右肩部에 該當한 天棓星의사이에는『메서에』十三番이라는 北天最大의 星團이잇서 깨끗한밤에는 肉眼으로보이나 古天文書에『氣』로써 일컷는者는 直徑 約十五分(度)이니 地球와의 距離 三萬六千光年 이다 最近 米國加州『산·호세』에서『노바·허-쿨레쓰』라는 一千光年의 별이잇서서 新羅의 末葉 甄萱과 高麗太祖가 너죽고 나살자는 血戰을하든때에 두조각에 갈러진것이 今年에까지 그消息이 到着되엇다는 通信이 왓섯거니와 어떤 星團의距離는 예가(?)어안닌 것을 알겟다 天文家의 一說에는 太陽系가 헤리클레쓰星座를 向하야 쉬지안는 길을 가고잇다하니 織女와 서로이웃인까닭이다

◇

天冠 大角의 附近에서 北으로 가장 번듯하게 눈에잘띄는것은 北斗七星이니 그 莊嚴한 風姿로써 天界에 雷名을 떨치는者이다『七政(日月五星)之樞機요 陰陽之本也-라』하니 [illegible]하야『[illegible]四方하며 以[illegible]하야 마치 [illegible]五行也-라』고 하야 마치 [illegible]文이 一國[illegible]을 한손에 거더쥐고『總統天下兵馬』까지 한것 이의 偉大한 存在인것이다 그로써 이미 足하것 거늘『又 人君之象이니 號令之主也-라』고 最大級의 讚辭를 集中하엿고 이外에도 第一星에는『昏天하니 主陽德하며 天子象』이라해서 비롯하야 만흔讚辭가 枚擧의 겨를이 업다 北斗의 崇嚴이 [illegible]하엿더라 北極星과 外觀으로 되어 實際星俗의 固有과 時間의 進展과 그의 節序와의 契合이 매 用上으로도 巨大한 自然의 工作을 일운것이니 이마 崇拜이 차라리 當然하다 佛敎에서는 이로써 如見菩薩의 化身으로 처서『護國土、救貧窮、滅殃禍』하는 구실을 거듭로 맛는 者이니 朝鮮의 民俗이 太古로부터 星辰을 崇拜함이 그 固有한 傾向임은 別論이 잇거니와 朝鮮佛敎史上에 잇서서도 新羅(西山大師)의 法脈을 이은 英宗의 高僧 普月이『每夜에拜北斗하고 夜半而起하야 禮口稱誦하엿다는 密敎派의 作法을 힘씻든 記錄을지니 七星님이 世俗的佛敎와 表裏本末처럼 融合되어 來를 가진것이다



어제北斗七星의 個個의별이름이 따로잇스되 하나식만도아니니 朝鮮의 民俗이 그로써 織女의 七子로 따지는것은 上述이잇고 春秋運斗樞以下 諸文에 第一로 第四까지는 斗魁요 第五로 第七까지는 斗杓이며 이의 天文 는 曆象上의 名號로 一天樞 二天璇 三天璣 四天權 五玉衡 六開陽 七搖光이 그것이오 術家的見地에서는 一貪狼 二巨門 三祿存 四文曲 五廉貞 六武曲 七破軍이오 이外에도 上遠一天正 二天法 三天令 四天伐 五天殺 六天危 七天獄等의 名目이잇서 一의 上出한外에 二는 主陰刑 三은 主禍害 四는 伐無道 五는 殺有罪 六은 主天倉五穀 七은 主兵 하는等의 여러가지의 職能을 부처잇다 煩瑣한 그만두고 이七個의 별이 판에 박은듯이 뚜렷하되 그天文學上의 價値로보담도 별의大小와 밋그光度의 按排에서 여간이 아닌 衡用 盛況을 나타내인바이니 첫별天樞와 最終의 자루(柄)세별이 모다二等級의 晃亮한 별들이요 둘재셋재가 三等星으로잣칫작고 복판의 天權星은 第四等의 더작은별로되어 그全體에서 明滅閃映함이 마옵것 그調和의 美를 發揮한것이니 이것이 原始時代아닌 오늘날에도 무엇인지 造化의 神秘라도 잇는듯이 幻想되는 所以이오 자루의 복판별은 자세히보면 두별이니 即第六星의 이웃에는 有名한『알코아』의五等星이 고요히 빗을노하 보기에귀엽은것이다 별의 美는 明星에만 잇는것이아니어서 微星도 獨特한美를 가지는것이니 이별이 그一個이오 希臘傳說에는『미자-』(第六)와의『알코아』와는 말과騎士와의 幻身이라고해서 趣味잇는 이약이가잇다 中國의 天文學은 여기에다 만『輔星』의名稱을 달어두엇슬 뿐이다

揷圖北斗七星의運行

一日中의일 (一)八月一日 午後八時 (二)同 午前二時 (三)同 午後二時(?)

一年中의일 (一)二月一日 午後八時 (二)五月一日 同 (三)八月一日 同 (四)十一月一日 同

學藝

現代哲學과『人間』問題
—特히『루넷산스』와의關聯에서—
② 朴致祐

自我를 도로 찻게 되엇다.』라던지『中世人은 거짓 人間으로 살엇섯는데 近代人의 德澤으로 사람은 永遠히 참된人間으로 살수잇게된 것이다』라는지한 이러한 市民의너무나 市民的인 自家宣傳에 欺瞞되어서는 아니되는것이다. 市民으로서의 自我를 차저던것이아니라『市民』은 비로소 市民으로서의 自我를 차젓슴에 不過한것이다. 封建人은 封建人답게 살엇든것이오 市民人은 市民人답게 살엇슴에 不過한것이다.

우리는 時間的,空間的으로 一定한 歷史的,社會的인『情況』을 떠나서는 存在할수 업는 以上 自我의 참된 發見도『人間一般』『純粹人間』으로서의 自我의 發見일수는업는것이다. 從來로 自覺이라고하면 곳 무슨 時空을 超越한 純粹한(自我性)의 發見이나 意味하는듯이 생각하나 이것은 決코 참된 意味의 自覺은 아닌것이다. 自覺이라는것은 참된 自我의 發見, 따라서 自我의 참된 姿態의 發見일것이며 그러나 이 自我의 참된 姿態가 곳『情況』에 依處해 살고 잇다는 그것일것이 以上 이러한 情況的인 自我의 發見, 다시 말하면 自我의 情況性의 發見(規諦)을 떠나서는 自覺이란 처음부터 잇슬理由無하지안흔가. 이러한 意味에서 될수잇는대로 時空에 制約되어 업시 純粹한 自我性에 耽溺하는것이 自覺인것이 아니라 自我의 本來的인 姿態인『情況性』에 눈뜨는것, 自身의 가지는바 歷史的, 社會的『位置』를 懺然히 깨닫는것, 即『情況에 잇서서의 自我』의 發見만이 참된 自我를 發見하는 所以이며, 따라서 참된 意味의 自覺인것이다.

이러한『自覺』만이 참된 意味의 自覺인 以上 르넷산스의 所謂『自我發見』이야 말노 이러한 意味에서 그리고 다만 이러한 意味에서만『自覺』이라고 이를수 잇는것이다. 웨이냐하면 그들이 무슨 純粹自我 純粹人間을 發見해서 그러한것이아니라, 市民人으로서의 그들이 市民自身의 市民的情況性에 눈뜰또게 되엿든結果 비로소참된自我, 即 市民人으로서의自我를 호롱히 發見햇섯다는 意味에는 그러한것이다.

(B)復歸로서의發見

『르넷산스』는 人間을 發見하엿다는말은 둘재로『르넷산스』運動은 古希臘의 예날로 도라가서거기서 참된人間을發見하엿다는意味로 使用되는때가 잇다. 다시말하면『르네산스』라는 말에는 古希臘에로의 復歸運動이라는意味가 잇는것이다. 事實『르넷산스』라는 言字의 原意는『再生』이라고한다. 讀者는 再生의 再字에 注意할必要가잇다. 엇재든 우리가 普通 文藝復興이라는 譯語로부르고잇는 이 巨大한 文化運動은『復興』이라는 두字가 벌서暗示하듯이 적어도 이運動에 參加한選手들의 揭言에 依할진댄 中世的封建體制下에 抑壓되엿든狀態로부터 自由롭고 明朗한 古希臘의 옛날노 다시한번『도라가자』라는運動──다시말하면 中世的 現在로부터 希臘的인 過去』에로의『復歸』運動이엿서야마될것이아니엿든가. 이것이事實이라면 그들이 發見한 人間이란 結局 希臘的인 人間의『타입』이엿서야만될것이아닌가. 그러나 歷史의 厳然한現實은 우리에게 무엇을 提示햇든가?。다름아니다。그들이 發見햇다고 떠드든 人間은 實相이즉 希臘的假面에 숨어잇는『市民的』인人間, 아니 오히려 처음부터 徹頭徹尾『市民的』인人間이엿다는事實이다。

그러나 첫재의意味 即『自覺』이란意味의 發見과 둘재의 意味 即『復歸』라는 意味의 發見과는 全然無關係한것은아니다. 當時人에게잇서서는 이兩者는 相互不可離한 一者의 兩面이엿든것이다 르넷산스에 參加한 選手들(市民人)은『참된 自我』『참된人間』을 萬古希臘的人間』에 다시도라가서차젓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自覺』이라는말과『復歸』라는 말은 全然同一한말은아니다 그러기때문에 나는便宜上 各各따로 나노아서 살펴보기로한다

(A)『自覺』으로서의『發見』

흔히르넷산스는 中世封建的體制와『神』이라는 指導理念 밋헤서『自我』를 엇지못하고살든人類, 即自我를 일허버리고 살든 人類가 이러한 狀態로부터 도로 自我를 차즌 時期라고 한다 다시말하면『참된自我』『참된人間』을 發見한 時代라고한다. 그러면 그들이거기서 차저냇다는 이 참된自我 참된人間이란것은 果然어떤것이엿든가? 時空을 超越한『칸트』의 所謂人格의王國』의 住民으로서의人間이엿든가? 人格『性』『理性』 自由『性』 自覺『性』과 가튼 單純한『性』으로서의 人間이엿든가? 아니다. 이러한 時空을 超越한『純粹人間』이 아니라 市民制社會, 市民的社會라는 時空的으로完全히 局限된 世界에서만 살수잇슴 그러한 市民으로서의自我『市民的인人間』을 차젓슴에 不過하엿든것이다. 다시 말하면 차저진『人間』은『人間一般』이나『純粹人間』이 아니라 結局은市民的社會의 要求에 應한『市民的인人間』의『타입』에 不過하엿다는말이다. 그럼으로『르네산스』는 人間을發見햇다』라는말을 우리는 그저 덥허놋코『封建人은 自我를 일코 살엇섯는데 市民人의 [illegible]

漢字의研究
字形、字音、字義
(四) 洪起文

그럼으로서 내가 여긔서 말하려는 漢字의 研究도 廣義를 取한 것이 아니요 狹義에 限한 것이다。卽 文章의解釋、古典의 訓詁、乃至 文獻의 考證과 가튼 것은 아즉 다음으로 미루고 위선 漢字 그 自體의 發展에 對한 探究를 力說하는 바이다。그러니 漢字 그 自體는 다서 形音義가 [illegible] 하나잇스니 첫재는 字形이요 둘재는 字音이요 셋재는 字義요 [illegible]

方人이라는 뜻은 그 字義요 延知切은 그 字音이요 東字의모양은 그 字形이며 또假令 耳字를例로 든다면『귀』라는 뜻은 그字義요 忍紀切이나 如蒸切은 그 字音이요 耳字의 모냥은 그字形이다 다른 나라의 言語로 말하자면 [illegible]

字以後大篆 小篆 隸書로부터 지금의楷行、草까지 그 發展의 徑路가複雜하고 또지금 楷、行、草의 三體를 混用하기때문에 그 實際의 使用도 簡單치 못한마큼 中國人들은 字學이란 名詞를 거의 字形研究에 專用하다시피 하도록 字形研究에 置重하야 왓다。

그러나 내가 이미 前提한 바의 本意로 미루어 보아서는 字形의 研究가 何等의 切實한 必要를 가지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範圍를 좀더 縮少하야 音義 두方面으로 制限하지안하면 안될것이다。그러더라도 音義 두方面에 對하야서도 中國文을 中心삼아 硏究하자고 主張하지안는다。그보담도 朝鮮과를 關聯시키어 硏究하지 안하면 안될것 [illegible]

에잇서 이미 그 音義의 由來는 闡明되얏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任務는 決코 그로써 終結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다시 朝鮮에 잇서서 오랑캐라든지 귀라든지 그 訓과『이놈』는 그 音의 由來를 闡明하여야 한다。반듯이 中國에 잇서서 그 音義의 闡明을 기다려서만 朝鮮에 잇서서 그 音訓을 闡明할수잇다는것은 아니나 만흔 境遇 그와가튼 順序를 밟게 될것임으로 그처럼 말하드라도 상관이 업슬것이다 밋는다。何如튼

朝鮮의 現行漢字音은 어느 時代에 輸入되어 어떠케 變해왓는가?또 그 現用의 訓은 어느 때부터 생기어 어떠케 變해 왓는가?이것을 밝히지 안코 [illegible] 에 際하야 만흔 困難을 當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다。勿論 주먹다짐으로 모든일을 處理해버리기는 至極히 容易한 일이겟지만은 科學과 주먹다짐은 距離가 넘어나 동떨어지다。

그러면 그 研究는 어떠케 하여야 되는가?

研究의 方法이 問題 될것이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나는 字音과 字義를 갈러서 그 研究의 方法을 대강 말하고자 한다。내 勿論 그方面을 專門하는 學徒가 아닌즉 多少의 誤謬도 엄기 어렵고 또 未安한 說明도 잇슬찌 모르나 漢文學界와 주먹다짐式 漢字處理에 倦厭하야 어쯧을 듣기에 아르켜주는 나의 心情만 살피어 준다면 그나마지는 多少의 諒解를 엇기지 안하리라고 밋는다。

作家·評家·讀者
(一) 金煥泰

아마도 朝鮮에 新文學運動이 始作된以後로 昨今과 가티 作家의評家에 對한 不平 不信의 소리가 놉흔때도 업섯슬것이다.

그리하야 끗내는『批評無用論』의 提唱까지 보게되엿으나우리들의 勇敢은 嘲笑와 憑慮로 한편 批評家를 한 一顧의 餘地도업시 이를抹殺하야버리고야말엇다.

그러나 나는 이『批評無用論』이 넘어나 늣게 提唱되엿음을 슯허하는 者이다. 朝鮮에 新文學運動이 始作된 그때부터 우리文壇에도 全혀批評이 存在하지 안치는 안헛으나 批評이 批評으로써 鮮明한色彩를띄고 낫하난것은 프로文學批評이엇다고 할수잇슬 것이다.

이리하야 이프로文學批評이 우리文壇에 批評文學을 樹立하는데 만흔 貢獻이 잇섯다는것을 우리는 이저서는안될것이다.

그러나 또한『批評無用論』의 提唱까지 보게한 우리批評壇의 混亂 한大部分 그때에 胎胎한것이라는것도 우리는 알어야겟다。

批評의 對象은 언제나 作品 그것이다. 그럼으로 批評 그것은作品의뒤를 쌀는것이오 決코 압스지못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프로 批評家들은 언제나 作家의 立法者가되고, 裁判官이 되랴하엿다.

그리하야 그들은 아모런 消化力도 理解能力도업시 連絡船으로 輸入하고또는 옛券의팜프렛을읽고 어든貧弱한 知識을가진 頭腦로써 製作 한『唯物辯證法的 創作方法』이니『쏘-씨엘리쓰틱 리알리즘』이니『唯物辯證法的 寫實主義』니 하는 形形色色의 創作方法과 規準을 陸續提出하야, 作家들의게 그 創作方法內에서 創作하기를 强要하엿스며, 그들의 製作한 規準에 빗추어 마저『자코빈』黨의 裁判官模樣으로 自己 [illegible]이 不足하야 眞正한 批評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엿스며, 그로된 基準을 가지고 作品에 臨하야 그作品의 生命과 躍動性을 剝奪하엿스며 作家의게 조고만한 時間과 마음의 餘裕도 주지안코 곤 [illegible] 한 創作方法과 規[illegible] 作家에 [illegible]

그래도 프로文學의 創作家들은 [illegible] 作品에 無差別的[illegible]을 나리기를 조곰도 꺼그려하지 아헛다。

그러나 眞正한 批評家는 한 作品에 判決 을나리는 裁判官이되여야한다。한 作品을 보라면 잇는그대로의 그것을 보[illegible] 評者는『메슈-、아-놀드』가 말한『沒利害的關心』과 가장 柔軟性잇고 可感性잇는 心的『포즈』로 그 作品에 沒入하지 안흐면 안된다。

이리하야 어든 印象에 다시 反省을 加하야 分析 批判하고 또 作品에 暗示된 作家의 理想的 精神活動과 心的體驗의 方向에 맛하,自己의 心的體驗을 再構成하는것이 곳 眞正한 批評인것이다. 그리고 이를 爲하야는 評家 에잇서서 가장高度의 心的訓練과 審美的教養이 要求되는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우리의 只今까지의 批評家의 大部分이 더욱이 프로評家이엇서서 이런 訓練과 敎

世界最大의『카메라』 [illegible] 寫眞機製作會社에서 發明된『카메라』인데 이『카메라』를 쓰자면 [illegible]飛行機에다가 이것을 裝置해가지고 高空에서 四十五度의 角度로 下界를 向해서 上部의『렌즈』를 [illegible] 는데 여기에는 十個의『렌즈』가 부터잇서서 二里以上 나아가며서 無慮六七十平方哩의 外物을 分明히 撮影할수잇다는것이다

開催時日

九月二十一日公開決選
◇九月十九日 一次豫選
◇九月二十日 二次豫選

第一回 全朝鮮男女音樂懸賞競演大會

本社大講堂에서

審査員
『피아노部』 金永煥、朴慶浩
『바이올린部』 洪蘭坡、桂貞植
『聲樂部』 玄濟明、金文輔

콩쿨樂譜集 定價 五十錢(送料六錢) 本社庶務部에서領布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音樂家協會

米國의學生氣質
(4) 在加州 李定根

[illegible]하는中에 어려운일시 [illegible] 하는 것도 否認할수업는 事實이외다

『스포-츠』『스포-츠』는 大學生活의 一部分으로 하고쉬지는 안흘나 스포-츠처럼 日常生活의 中心이 되며 氣分을 刺戟하며 [illegible] 學生身分으로서의 [illegible]한 生活에 剩餘되는것은 업스리라고생각하는 까닭에 私的生活의 一部로 하엿습니다。

[illegible]의 人氣競技요 野球와 [illegible]對抗競技라고 하겟습니다 누구던지 競技選手로 [illegible]에는 그人氣는 非常합니다。校內校外를 勿論하고 한갓英雄의 待遇를 밧는다고 하겟습니다。校內에서 그競技選手는 科學者보다도 哲學者보다도 더욱 價値잇는 存在외다 學校의 廣告는 優勝하는 競技選手보다 더잘되는것이 업스니까요 아마 이보다 더큰成功은 업슬것이외다。

갓지마십니다 그러면 女性들이 恒常 男性들보다 더마시게되는 것이 常例외다『女性들이 엇더케 그러케마실수잇는지?』하는 問題 는 말하려고 하는 의 宿題외다。

[illegible]學生들을하는데는 저때 이슬[illegible]이외다。그러나 이슬한밤중에는 [illegible] 우스』의 窓으로는 짜듯한燈火를 빗치 흘러나아오고 은은한『알즈』의 旋律이 意外의風致를위를 놉니다『부성』은 가장 陰謀 할만한 환境입니다。안약『삐질』가 소리잇게잇다고 하면 예서더한 便宜가 업슬것이외다。

『性』『파잉』이나『自動車』나『부성』이 모두 性을 包含치안코는 그存在가 업슬것이외다。或時 飮酒에도 性이同行하게될니다。

性을논하자면 男性과 女性일것이외다。그러나 間或 第三性의出現을 보게됩니다。第三性을 普通부르기를『크루너-』(Crooner)라고 합니다。이『크루너-』들은『라디오』를 짝하는 人物들로 거기에 훌륭히 成功들합니다。

性에對한 研究는 全米大學을通하야 가장通俗的인 科外課라고 하겟습니다。그럼으로 米國大學生들은 다른무엇을 아는것보다도 性에對하야는 보담더 잘안다고 하야도 過言 이아닐것갓습니다。아즉까지는 熱心으로들 工夫하고 잇습니다 大學校內 寄宿舍內或은『클럽하우스』內에 開催되는 會集又는社交會合에 모혀오는 젊은婦人들은 性에對한 老練家들로써젊은『뽀이』들에게 敎訓을着實히주고 돌아갑니다

『飮酒』 飮酒를 大學生活에서 빼아버리고십흔 생각이 업습니다。『포올나』하게할뿐아니라 生活의 興奮劑인까닭에。

勿論 多少의 困難한 點이 업지아니하지만은 現大學生들은 飮酒를 한 重要 한 工夫로 생각합니다 宿所로『클럽하우스』로 各種集會로 그놈이 빠질적은 別로적습니다。술로 親友를 사괴는것은 글로 사괴는것보다 훨신 쉬울뿐더러 豪氣스러운까닭이라고 하겟습니다。

飮酒할뿐안이라 또가지고단녀야할 必要도發見하엿습니다 普通境遇에잇서서는 過飮하는것이 안이라 適當한 呼吸을 檢察하기에 꼭치는것입니다 이런境遇에는 흔히『갈』들이 同伴하며또

航空界의快消息
固體不爆發性『깨솔린』
米國의『불쓰신』博士가發明

【『뉴-욕』發聯合郵信】最近米國에서는 固體狀이며 또한 不引火性의새로운『깨솔린』이 發明되여 燃料界의 一大革命이라고해서 非常한세세-숀을 이르키고잇다

普通『깨솔린』은『소레-ㄴ』이라고 命名되엇는데 普通『깨솔린』으로부터 製造된 油脂狀의 固體로서 普通熱이나 불에는 全然引火爆發되지안는다。發明完成後 곳 紐育大學航空科에서 그不爆發性을實驗하기 위해서 거긔에 小銃을 發射하기도하고 機關銃을 쏘아보기도하엿스나 全然爆發되지안헛다。다시 그後有名한 飛行家『방그보-ㄴ』氏도 同樣의 實驗을 해보앗스나 그成績은 極히 優秀해서 專門家들은 누구나할것업시 이것을 推賞하고特히 이것이 空中戰에엇서서 飛行機用의 燃料로서 가장理想的이라는것이 證明되엿다。

發明者는『깨솔린』의 研究者로서有名한『아들프·불쓰신』博士인데博士는 一九一九年『깨솔린』으로부터『바라핀』을 遊離식히는 實驗中 固體不爆發性『깨솔린』의 發明이 반드시 不可能하지는안다는 確信을엇고 爾來 十六年 그研究에 沒頭하다가 今回맛참내 이것을 完成하엿다고한다。

그리고 從來도 이러한 類似燃料는 發明되엿스나『불쓰신』博士의『솔렌-』에 比하면 極히不完全한것이엿다。그리고 이新燃料의生産費는 매우싸서『가론』에 對해四分의一仙이라고한다。

이發明은 엇재든 引火爆發의危險性이만흔 航空機『모-터-뽀-트』의 燃料로서는 매우 理想的안것임으로 그大量生産은 各方面에서 매우待望하고잇다고한다

詩

九月의詩
합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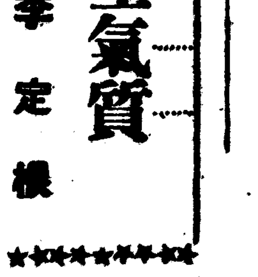
하늘 끗업시 멀어지고
물 한업시 차지고
그女人 고개 숙이고 慾心지는 九月。

기러기때 하늘까에 사라지고
가을납 빗 업고
그女人의 새하얀 얼골 더욱 蒼白하다。

아아 九月
싸늘한 가을바람 옷자락 쥐여뜻는 九月。
그女人의 水晶처럼 맑은눈에 눈물어리는九月。
九月의 風景은 애처러운 한편의 詩。
그女人은 나의가슴에 파무더우다 (投稿)

新刊紹介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報 第三〇號 奉天小西邊門外 奉天居留民會聯合會發行 振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四十錢



黑風
韓龍雲 作 金[illegible] 畵 【119】

▲[illegible] 第三號 [illegible] 定價二十錢

▲[illegible] 定價三十錢

혜후(邂逅) 4

창순이가 해적에게 그러한말을 하야서 치료할 경황을 어든것은 물론 본의가 아니요 장시의 욕을 면한뒤에 스스로 자결하자는 것이엇다 그러나 치료하는 동안에 밧것으로 감시(監視)가 심하야서 조금도 자살할만한 틈을 탈수가 업섯다 창순은 자기의일에 대하야 아모리 생각하야 보앗스나 버서나기는 가망도업고 죽을내도 죽을틈이 업서서 고민에 고민을 더하얏다

살기를 위하야 도적질을하는 해적의배에 죽지못하야 고민을 하는 창순이가 잇는것은 실로 긔이한 현상이엇다 모든 도덕과 의리를 도라보지 아니하고 남의것을 빼아서라도 다만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라는 해적과 차라리 죽을지언정 도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안켓다는 창순 사람의 인생관은 이러케 다른 것이엇다

이른날이엇다 갑판우에서 여러 사람이 수성거리는 소리가 들렷다 사람들의 와다갓다하고 수군대는것이 차차 심하야지며 불안한 공기가 떠도는것 가탓다 창순을 감시하는 사람도 번가라서 드나든다

업흐를 가리고 누어서 자기의 선후책(善後策)을 생각하든 창순은 궁금한 생각이 나서 감시하는 사람에게 무슨일이 잇느냐고 무럿다 감시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말을하지 아니하다가 창순이가 여러번 무르매 창순이가 미인이니만치 감시하는 사람도 창순의 호의를 사기위하여 나중에는 말을하는데 경비순양함(警備巡洋艦)이 멀리보이므로 만일을 념려하야 도망할 준비를 하는중이라고 한다

창순은 그말을듯고 두손으로 눈을가리고 무엇인지 한참 생각하얏다 창순은 감시하는 사람에게 대장을 청하야달라고하얏다 감시하는 사람은 창순이를 혼자두고 나갈수가 업서서 다른사람을 불러서 대장을 청하얏다

『대장께 엇더하냐 웨오라고 하얏노 보고싶어서 오라고햇니』

문을 열고 드러서며 보기시른 웃음을 웃는 해적의 대장은 어떠케 말을 하고 창순의 엽헤 안는다

창순은 목사가 엽헤 오는것만치 시럿지마는 그것은 마음에 서뿐이고 얼골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얏다

『조곰도 낫지 안습니다 하도 갑갑하야서 박게좀 나가보랴고 오시라고 하얏습니다』

『응 그래 아픈사람이 바람을 쐬면 아니되는데 박게는 나가서 무얼하게』

하는 해적의 대장은 창순의 박게 나가는 것을 의심하야서 허락하지 아니할 눈치엇다

『그래도 너무 누어엇스니까 갑갑하야서 병이 더하것 갓슴니다 대장님과 가치 박나서서 바람을 쐬엿스면 대단히 시원할것 갓습니다』

이러케 하기시른 소리를 하는 창순의 말소리는 침울하야 속으로 드러가고 삼분쯤이 입바그로 나왓다

『나하고 가치 바람을쐬면 조켓다? 그러면 그러지 바람도 동부인을하고 쐬이면 조치 어서 나오너라』

하는 해적의 대장은 먼저나간다

창순은 그의뒤를 따라나가다 여러사람은 둘러서서 감시를한다 해적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엇는 경비순양함을 바라본다

『무엇을들 저러케 바라보고잇서요』

하고 창순은 해적의 대장에게 무럿다

『배를 바라본다』

『무슨배야요』

『무슨배냐? 경비순양함 어려다』

『경비 순양함 어야요 그러면 안되얏습니다 무슨 이배가 상선(商船)모양으로 차렷스니까 무슨배인줄은 모르겟지마는 만일 안다면 쪼처올것이 아닌니까』

하는 창순은 조곰 불나는빛을 띄우면서 해적의 대장을향하야 말하얏다

曆

九月四日(水) 陰八月初七日 癸未·木·壁·開

▲祭祀에宜함

▲白露八日(陰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陰八月二十七日)

明朗한 生活을 爲하야
高尙한 趣味를 爲하야
眞正한 修養을 爲하야
江湖에 이한卷을
보내노라―

一年中 第一册보기조흔 시절이 돌아왓슴니다 燈下에 四海公論을 펴노흐면 날이 새이는 줄도 몰으게 자미가 잇슴니다 長長秋夜에 헛되히 밤 새지 마시고 단돈 十錢으로 有益하고 자미잇고 지식과 常識이늘어가는 四海公論을보시면 一擧三四得이나됩니다 또老兒만 읽으신다는 것보담우리 二千萬대중이모다읽도록勸勉하야주시면우리 世上이얼마나속히文明하야질가요 또 얼마나 만흔 幸福이올가요 서로힘써 배웁시다

勿驚 堂堂二百餘頁 定價十錢 郵稅二錢

注文은振替를利用하시오 切手도조흠니다
半年分 六十錢 一年分 壹圓
京城府竹添町二丁目十八番地ノ一
發行所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電話光三三四・二〇五九番

支分社大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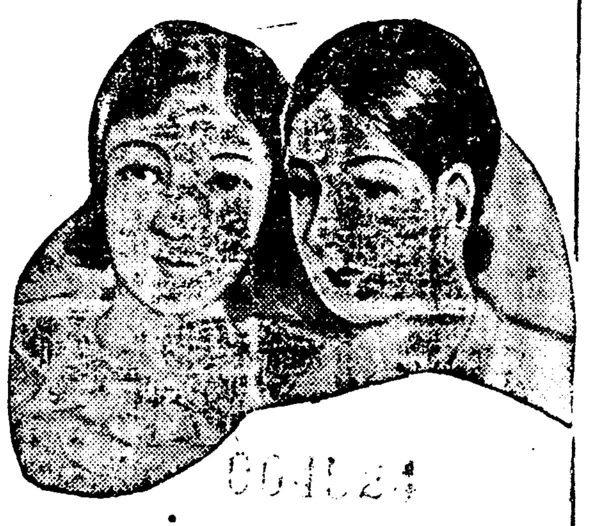
四海公論

九月特輯

高級時評타는 자미잇는 隨筆閑話

文字에수리고 煩悶에헤매이는우리靑年이여!! 가뭄에一滴萬金의慈雨가 洽足하게 나림가티 空腹에滿盤珍味의盛饌을 豊富하게드림가티 寥寂한 江山에 千里東風의 春煦가 우렁차게 도라옴가티우리압헤나타난것이 이四海公論이다 混亂을整齊하며 散漫을 緊張케함도 이四海公論이오 荒廢한 曠野에 萬頃蕩漾의 潤澤이 무르녹고 晦瀍한陰夜에 昊熙한 光明이 비치어오는것도우리四海公論이다 慰安과 希望을限업시주는 이四海公論을 보시오 읽으시오 旱天에雲霓!! 從來의 雜誌는 內容이 極히貧弱하야 보잘것업는것을 비싸게 팔어 왓다 엇지하야 그러케 빗쌋는가 그理由는만타 卑近한 一例를들면 갑이빗싼故로 보는사람이 적고 만이팔리지안는故로 빗싸게하여야 收支가 마질줄알엇다 그러나 全部 失敗에 歸하엿다。조흔雜誌를 싸게팔면 만히팔리는것은 定則이다。即 社會奉仕的犧牲主義로 內容을充實하게하고갑을 싸게하면 멧十倍나 만히팔릴것을 몰랏섯다。非單 이것이 經營의 고쓰(骨)가 될뿐아니라 一般大衆에게 얼마나 貢獻이되는줄을 하물며 그 內容에 이르러서는 말할것도업다 무릇 우리는먼저 現今 一般大衆의 要求가 那邊에잇는가를 充分認識하면 그 實情이 엇더한가를達觀把握하야 大盤石가튼信條下에서 統制經營하야오로지 大衆의벗이되고 木鐸이되여 그 文化의促進을圖謀하며 그 進路의 開拓을輔導하야써 그 希望의 成就에貢獻함에奮發할것이다 本紙가呱呱의聲을發한지 不過數旬에 그人氣는 俄然沸騰하야 各方面의熱狂的歡迎을밧는것이 偶然의 事가 아님을 肯定할것이다 本社는 더욱 自重하며 自彊不息하야 所期의 目的에向하야 驀進하는바이다。從來雜誌에 不滿을 늣기는여러분이여 光明아페서 蹶起하시옹 奮起하시옹 池中의蛟龍이여 四海公論이라는 雲霓를타고빨리登天하시옹

人格論 金키憲
가을은왓다內面에沈潛하야自我를完成시길가을은 왓다



新秋兩雄의帝王篇

學窓獨語 李光洙
一世의文章家요 經綸家인 先生이學徒에게보내는말

事業과富 徐椿

파ー대讀本第二課 世界日誌 田元培

生活偶感 李載薰

善惡 李晟煥

社會綱要 발자크

新長篇連續小說 花心 方仁根作
新聞小說의 最高峰이라고할만한 某報에『魔都의香불』이라는 長篇을 發表하야 滿天下의 讀者를熱狂시킨것은 小說을 말하는이면 누구든지 잘알것이다 本篇은 그보다몃十倍以上의 魅力가진力作快作!

排他主義를바리자 金海鎭

절름발이文明에서綜合文化로 田元培

世界經濟의動向

人間의本質 朴齊松

포이엘바하

史譚 궁오는大闕 金東仁
王位에잇스면서죽은안해를戀戀不忘하는애끕는情話。

怪奇探偵小說 체퍼손街의殺人事件
체퍼손街를싸고도는人間悲劇을그려낸興味小說

北美學窓生活이그리워 笑鵑生

秋夜長長讀書篇
一、안해의편지 金明姬
二、내맘의불길 銀津童
三、魂만가즌處女 全모세
四、文學靑年의手帖 金松竹
옛戀人에게
눈물의밤

거리의怪男깍득이 朝鮮의차푸링? 千眼居士
映畵俳優도아니오 拳鬪選手도아닌 깍두기氏! 인제 長安의人氣를獨占하엿다。거리의怪男깍두기의 正體는무엇인가。獵奇的好讀物

創作
生活의揷話 金正革
풀을뽑으며 朴貴松
放射線의焦點 金亮燦
아리랑세나리오 아침 李順?

文藝評論에對하야 金成柳

꼬십千態 金波一束

讀者文藝도만히실엿슴니다

우리朝鮮도 이제야 完全한文化新村이되리다 精神의 糧食이 (貳百頁 以上의 雜誌가) 단拾錢으로 살수잇스니 勇敢스럽게 힘써서 읽읍시다 배웁시다 文化啓發에 全世界의 톱프를끈 四海公論!! 紙代도못되는 싼갑으로드리는 奉仕的 이 壯擧를 이 宏壯한 廣告를보시오 얼마나 文化促進에 熱中하는것을 다른사람은 이잡지를 다보앗는대 나만안보면남에게 뒤떠러지게 되오 십전 액기지말고 지금곳곡읽으시오

時事解說 公布된殖産契 그動機와眞意?

② 申泰翊

世間에서 말한 두가지의 點을 가지고서 殖産契令은 거트로 旣設産業組合의 不振을 打開하라는 一種의 對策的 施設로 되어잇지만 그 한便에 잇어서는 金組로서의 勢力擴張을 圖하라는것이 가장 큰 目的으로 되어잇는지 한번 드려다볼 必要가 잇다

×

産組이나 金組이나 모든 農村의 制令 (産組中 아즉 法令에 依치 안흔것도 잇지만) 에 依하고 또 그 理事는 官選으로 되어 結局半官半民의 形式을 取케되엿슴은 不拘하고 産組는 不振、金組는 數字上 良好한 成績을 나타내고잇슴은 엇지 된 까닭인가 잇다 그런데 金組는 數字上으로 良好한 成績을 나타내이고 잇스나 이와 反對로 産組는 무슨 까닭에 그 成績이 不良케되는가 함에는 몃가지의 理由가 잇다 卽

▲金組는 金融機關이란 信用制度의 威力이 잇고 더구나 協同精神보다도 數字上의 業績을 올리기에 거의 全力하는 傾向이 만흔 까닭 信用制度보다 營利主義가 濃厚하고 또 따러서 世間으로부터 營利的貸金組合이라고 말을 듯는것도 이곳에 理由가 잇다 그럼으로 金組의 組合數가 八百七十八 그支所百八十六 組合員百十三萬名 預金一億三千九百萬圓 貸出一億五千萬圓等으로 數字上 큰 勢力을 보히고잇다 그러나 産組는 金組와 가튼 資金融通의 威力이 업는 바 이곳으로서는 數字上 發展이 容易치 못하게 되어잇다

▲그러고 新設의 金組에는 無利子長期低利資金의 融通을 밧게되고 또는 理事給料에 對하야 二三年分의 補助가 잇다 그러치만 産組는 그마한 特典이 업는것도 그의 弱點中 하나로 볼수잇다

▲끗트로 産組中 金融組合聯合會에 加入한곳은 그 聯合會를 거처서 資金을 借入하는 關係上 資金融通上 不便이 相當하나 金組는 以上과 가튼 特典이 잇슬뿐만아니라 組合員外의 預金을 取扱하고잇는 關係上 事業資金의 潤澤을 보게되고잇다

×

이와가튼 金組가 새로히 小産業法人인 殖産契를 맨들게된 것임으로 이 殖産契는 生産、販賣、購買、利用組合과 가튼 業務範圍로 된 農村同業組合의 作用을 알게된다 그럼으로 이 殖産契는 오늘까지의 金組가 農村經濟와 맺고잇는 關係를 좀 더 힘잇게 連結식히라는 一種의 施設이라고 볼수잇지안흘가 한다 또는 이 殖産契를 가리켜서 準金融組合과 가튼 地位에 잇는것이라고 말할수도 잇다 그런데 殖産契令의 條文에는 殖産契는 반드시 金組、産組에 加入함을 要한다하엿다 이것으로보아서는 이 殖産契를 오즉 金融組合의 所屬만으로 된것이 아니라 産業組合의 所屬으로도 될수잇다 따러서 殖産契는 財務局의 所管도 될수잇고 또는 殖産局의 所管도 될수잇다 이러케 되면 以上에서 말한것이 모두 要領不得의 말이 되고마는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러치만 이것은 다만 그 條文이 아리숭하게 되어잇슬뿐으로 實狀은 以上에서 말한바와 조곰도 틀림이 업다 卽 殖産契令을 보게된 動機에서 말한바와 가티 처음에 그 所管問題로 殖産、財務의 兩局에서 曲折이 잇섯든것이 內容에 잇서서 結局에는 이 殖産契에 對한 實權은 金組가 잡게되고 産業組合이란것은 오죽 形式에 끗치는것이 될것이다

×

그럼으로 이 殖産契令의 條文中에 第十條三項「契의 監査는 金組 또는 産組의 理事로서 此를 任함」또는 第十一條第十二條 以上에서 말한 微妙한 關係를 「갈어프라주」한것에 不過한것으로 볼수잇다 이點에 잇서서 殖産契令에 依하야 將次 朝鮮內에 新設될 殖産契는 金組의 손아귀에서 旣設産業組合보다 强力的發展을 圖할 施設이 될것임을 알수가 잇고 따러서 그것은 從來의 金組와 가티 協同精神이란것보다도 數字的好成績을 나타내이게함에 重點이 되지안흘가 함을 오즉 杞憂라고만 하기어렵다고 생각한다 —(終)—

朝鮮內製絲狀況

總釜數八千二百四十七釜 職工一萬七百八名

朝鮮製絲協會調査 昭和九年十二月末現在의 朝鮮內機械製絲工場은 輸出 國用을 合하야 七十五戶(其中六戶는休止) 八千二百四十七釜(其中三百八釜는休止)이오 男工 一千百四十四名 女工 九千五百六十四名 計 一萬七百八名의 職工을使用하고 同年中 白繭 一千百五十四萬四千瓩、黃繭 百五萬六千瓩 計 一千二百六十萬二千瓩(三百三十六萬貫)의 原料繭을消費하야 百二十五萬四千瓩(三十三萬四千貫)의 生絲를 生産하고잇는데 이것中 輸出向機械製絲는 二十二戶 六千六百八十八釜 男工 九百三十五名 女工 八千百二十六名 計 九千六十一名으로서 白繭 九百七十六萬 [illegible]

	工場	釜數
京畿	一四(三)	一、二五四(一、〇五〇)
忠北	二(一)	二九六(二〇〇)
忠南	九(三)	一、〇四〇(七〇〇)
全北	五(一)	七三一(四二六)
全南	七(三)	八〇一(七〇〇)
慶北	一五(三)	一、五〇一(一、六〇〇)
慶南	二(二)	四九八(四〇〇)
黃海	二(一)	三四八(三〇〇)
平南	三(一)	四六八(三九〇)
江原	四(一)	三六〇(二四〇)
咸南	一(一)	二九〇(二九〇)

共販과個人의 繭出廻數量

最近十年間調査

朝鮮製絲協會 所屬 各製絲工場은 旣報와如히 九月一日부터 一割의 操短을 實行하얏는데 十年度輸出製絲는 別項의 同會調査에 依하면 六千六百八十釜의 一割이 封印될터이다 朝鮮의 輸出向製絲가 一割의 操短을 斷行하기에 至한것은 主로서 原料繭不足을 豫想한 結果로서 昭和元年以來의 共販及個人의 繭出廻數量을보면如左하다(單位千貫)

	共販	個人	合計
元年	一八三	四四	二二七
二年	二一一	三〇	二四一
三年	二三三	三三	二六六
四年	三一〇	四一	三五一
五年	三〇三	四四	三四七
六年	三一二	四七	三六〇
七年	二七九	六九	三四九
八年	三九七	六六	四六四
九年	二三四	五九	二九四

卽 釜數의 增加에 反하야 九年度의原繭은 顯著히 不足을 告하고 舊正休業의 延長 其他의 實質的操短에 依하야 昨年을 打開하얏스나 今年度 春繭의 共販出廻數量은 十五萬貫이라하야 秋繭을 加하면 共販出廻數量이 廿萬貫에 不過케 안될으로 操短斷行을 한것으로 秋繭은 이傾向에 刺戟되어 相當히 增産될것갓고 特히 日本內地의 秋繭增産에 相當한 期待를 가지고잇다한다

製系操短 影響輕微

製絲協會加盟 七十五工場에서는 九月一日부터 一齊一割封印을 斷行하고 七百餘釜는休止키로되엇스나 이 實質的影響은 同會의 調查에 依하면

一、各工場共히 休止釜가 舊式 非能率的의 것에限할것

一、能率的 操業이 行할것

一、一方原料繭不足이 全能力의 三割 下인것

等의事情으로 實際影響이 적고 季節的關係「關係도잇서」女工整理도 行할必要가업스나 首腦者의 意見은 影響으로서 養蠶家의 打擊이 刺戟이 되게될듯하다한다。

米穀自治管理案 議會提案阻止

政府米拂下朝鮮內限定件等 丸仁穀協의大會提出議案

【仁川電話商通】丸仁穀物協會에서는 二日午後一時부터 役員會를 開催하고 第二回穀物聯合大會提出議案의 各地組合提案의 採擇審議를 協議하고 大體 如左히 決定하얏다한다。

一、阪神港灣倉庫保險料撤廢件

二、米穀自治管理案 議會提案阻止에 關한件

三、政府買上米의 拂下는 朝鮮內에서만 하야주기를 當局에 要望할件

四、穀物檢查에 關하야 特別記載追加要望件

가、白米에 多腹鍋、銀坊主、陸羽、龜國

나、大豆、黑豆、靑豆

다、現在實施中인 玄米에 龜國을 加할

五、正租檢查는 絶對로 生産檢查를 行하기를 再要望件

六、白米袋入檢查手數料를 叺入과 同一率로 低下할것과 正租의 檢查手數料는 一叺二錢을 二錢으로 低減하고 生産者擁護의 精神을 發揮하야줄件

七、小麥增産計劃을 當局에 要望할件

八、穀物協會聯合會에 常任幹事制設定件 (以上仁川穀物協會說明)

九、玄米의 運賃制度再檢要望件

十、玄米白米의 當用適時檢查制度要望件 (以上富坪院組合說明)

全南의旱災被害 一千八百餘萬圓

全南의 旱魃被害는 道調查에依하면 被害金額이 實로 一千八百廿七萬三千六百圓에 達하얏는바 詳細는 如左하다

(單位面積町、金額圓)

	被害面積	金額
水稻	七六、八九一	一五、八二七、六〇〇
棉	二四、七七七	一、五二〇、七八六
陸稻	一、四四四	三二一、八一〇
粟	四、八三三	二五一、五五〇
豆	一四、八六八	二五八、〇一〇
合計	二九、〇〇〇	一八、二七三、六〇〇

平均反當被害는 水稻廿一圓四十錢、陸稻八圓四十錢이 深刻하고、粟은 三圓六十錢의被害로 平均十五圓卅錢이라한다

▲最近採鹽高=【支賣入】

【發表】八月二十日現在採鹽高는合計二億二千三百八十四萬四千瓩이로 豫想高에對한比例는 十二割一分二厘의好成績인데 이것을各官內別로보면 朱安九千八百十萬六千瓩 廣梁灣一億六十一萬六千瓩 南市二千五百四萬二千瓩으로 되엿다

咸南北兩道

鰛油粕不振 製品取引不活潑

北朝鮮의 鰛漁는 咸北은 天候不順으로 豊漁이나마 陸揚後의 處理不能으로 生産額은 豫定의 半에도 達치못하는 狀態이오 一方 咸南도 天候不良과 鰛의 遡游가 例年에 比하야 遲延되어거의 休漁狀態로서 總體的으로 보아 不成績이라한다 夏漁를 終了한 江原道 方面은 先高豫想으로 所持製品을 賣惜하으로 約定은 日本內地로부터 神戶沖에 [illegible] 三圓二十五錢에 相當한 買込이잇슴에 不拘코 實物의 缺乏으로 製品의 取引이 不活潑하다한다。

米運賃混亂

仁川阪神間三十五圓

朝鮮米運賃은 八月一日「鮮航同盟」의 機能停止後 亂調子에 陷하야 漸落步調이든바 最近의 出荷의 激減에伴하야 一層惡化하야 仁川、阪神間은 三十五圓으로 同盟會의 公表運賃五十六圓을 二十圓이나 下廻하야 數年前 辰馬、尼崎兩社의 朝鮮進出當時에 比할低率時代를 再現키에至하얏다한다。

日下部汽船進出 三十五萬石獨占

【神戶電話聯合】尼崎汽船、阪對汽船의 脫退에依하야 自由積取를 決議하고 混亂狀態에 잇는 「鮮航同盟」에서는 內部的으로 自然的運賃競爭을 開始키에至하얏는데 盟外日下部汽船이 此間에割入하야 鎭南浦積京濱上陸의 朝鮮米三十五萬石을 引受하고 同盟內外에 異常한 衝動을 與하얏다한다。

大、哈間直通運轉

【電通哈爾賓一日發】大連哈爾賓間直通運轉은 九月一日부터 開始할터인데 午前九時流線型의特急亞細亞號는 大連、哈爾賓雙方으로부터 同時에 出發키로되엿는바 過去三十年間 露勢力下에 잇든 中東南部線에 北進日本의 形容을 보이리라한다

暴風雨온다는 二百十日、二百廿日

曆上으로본由來

昨九月一日은 二百十日이 엇는데 二百十日이란것은 立春節日부터 計算하야 二百十日에 當한날을 말하는것으로 이二百十日이 日本內地에 記入케된것은 約二百年前부터 이라한다。

×

이二百十日이 曆에 記케된데는 자미잇는 挿話가잇다 한다。 貞享曆의 選者인 安井春海라는 學者가 어떤날 낙시질하려 나가려 하는데 그때맛츰 一老漁夫가『내가 五十年間 試驗한 經驗에依하면 立春節日부터 計算하야 二百十日이나 二百二十日에는 반드시 暴風雨가 잇섯는바 오늘은 그날에 相當하니 낙시질하려가지말나』고 말림으로 半信半疑인채 낙시질하려 나가기를 中止하고 집에잇섯더니 果然 午後부터 大暴風雨가 잇섯다 한다。 어런일이잇슨後 해마다 注意해보앗더니 老漁夫의 經驗談과가티 됨으로 幕府에建言하야 特히이날은 曆에記載케되엿다한다。 그럼으로 二百十日은 반드시 暴風雨가 잇는것이 아니나 暴風雨의理由는 잇는듯하니 이前後는 氣象的으로 보아도 『마리아나』群島에서부터 가장 더위가 甚한 八月中旬으로부터 下旬에 生한 低氣壓이 맛치二百十日、二百二十日頃에 日本에 襲來한다는것이라한다。

滿鐵私債發行

【電通東京電話】滿鐵社債引受신디케트銀行의 幹事銀行인 興銀은 二日午後三時 丸內銀行集會所에서 銀行團首腦部의 參集을 求하야 滿鐵本年度 第二回 三千萬圓發行에 關하야 協議한 結果 左와如히 前回同樣의 條件으로 하기로 決定하고 直時 主務官廳에 認可申請을 提出하기로되엿다

發行條件

一、發行總額 三千萬圓

一、利率及價格 四分五厘百圓에 [illegible]

一、償還方法 三個年据置後

十箇年年半期에 三千萬圓以上

償還

一、拂込期日 十月上旬

그리고 신지케트銀行團의 前貸金은 現在四千萬圓에 達하여잇슴으로 社債發行을 見드라도 一千萬圓의 前貸金이 남을터이다

經濟界消息

○朝鮮製煉新社屋移轉=朝鮮製煉會社에서 買收한 元朝鮮土取社屋의 修繕는 豫定대로 終了하얏슴으로 七日 旭町現社屋에서 移轉키로 決定하얏다 新社屋은 二階만을 使用하고 一階三階는 貸室키로되엿다한다

商況 [三日]

株式 政局不安 低落

前場保合 市勢는 新味업고 保合圈內往來의 閑散으로서 結局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三十錢高인 百四十二圓十錢、日産三十錢高인 七十六圓四十錢、大新十

財界悲觀論 인풀레漸衰

一、株自體로는 一切의 悲觀材料를 買盡한뒤라 아즉 市勢의 壽命이 긴터로 今年의 新高價를 내인것은 長期二百株中겨우 二十에不過한것

一、對政人氣가 强한마큼 取組도 比較的多數가아니오 利喰을 急히하고 一氣로上進치안는 點에 어듸까지든지 堅實味가잇는것

▲弱氣=큰市勢가업고 無市勢이라는論은 如左한 根據이라한다

一、强氣가 말하는 好材料란것은 大部分 이미 云爲된것으로서 新刺戟이업는것

一、米國의 好況도『스톡』高를 中心으로한 部分的인것에 限하고 日中親善이란것도 從來두고두고 속아온것으로 이것을 믿기는 尙早이며 伊에戰爭期待로 昨株를 買한은 思惑에 不過한것

一、政界財界에는 依然한 不安이 彌漫해잇는것

一、今回의 高價는 過反動이 아니나 賣込하얏던 根本材料는 未解消인것

一、高價에는 持株를 賣拂할지오 利喰도나와 伸力이 減하고 結局嫌氣投가나올것

一、投機株는 下長이나 探算株는 上長으로 投機株는 整理가 必要한것

財界轉換의 필요로 輸出貿易으로 數量이늘지는하얏지만 價格으로보면 五、六年間에 안는것이 日本의 工業技術이 今日의 面目을 一新하야 一流國에 지지안흘만한 商品을 만들게는되엇스나 諸外國으로부터의 압박이 고르지 안이하야 中國市場을 잡어야겟는데 그것도 表裏가 不同한 國策임으로 그 親日政策을 밋을수업스며 둘재로 財政에잇서서는 借金整理으로 一時는 相關업겟스나 結局行政費의 節減其他低廉한 整理를 하지안는限 財政前途는 暗澹할것으로 이러케생각하면 財界基調의 將來

强弱觀의立論

內外材料檢討

▲强氣=큰市勢를 바라는 論者는 如左하다

一、低金利基調에 動搖가 업고 明年度豫算도 依然 積極인 プ레가 期待될것

一、國際收支關係가 好轉하야 氣分이 明朗하고 特히 日中親善關係가 本格化하얏슴에 對하야 一方 伊에戰爭擴大豫想 乃至 米、蘇國交惡化等 海外多事多難으로 이것이 結局 日本의 經濟活動을 刺戟할것

一、米國財界가 好轉하야 生絲高는 一方에잇서 雜貨의 輸出增加와 相俟하야 日本의 貿易을 年初豫想보다 好轉식히고잇는것

一、繭高乃至 米平作豫想에 依하야 農村方面의 購買力이 昨年에比하야 增進이約束되는것

一、事業界의 自發的統制가 그 結에就하야 來業績도 依然好調일것

今日財界 (三日)

◆米

仁川期米	先限	三三・五五
大阪期米	先限	三〇・九八
正租(仁川受渡)		一三・二〇
三等米		一八・三〇

◆株

朝取	新	二二・〇〇
東新		一一四・〇〇
日産		七六・二〇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現米	[illegible]

◆金銀

金	一匁買	十一圓五十錢
銀	一匁買	十二圓七十錢

後場低落

林陸相 辭任在近說로 政局不安人氣이나 東新百四十二圓六十錢 日産七十七圓丁度로 大新八十七圓三十錢 朝新二十五圓八十錢에 保合寄後 東新百四十圓台、日産七十六圓台로 떠러저 不勢裡大引

後場前場、日産 七十七圓五十錢 等 大引 三〇錢 高、市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二	五七	五七九八〇
東新	四二	五〇	八二六二〇
大新	二九	六六	八〇八〇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枚

▲大同電力新三八〇 ▲大同電力新九一〇 ▲電化新三八〇 ▲石川島造船五九五 ▲帝火一四〇〇 ▲秋田木材新二六、五五 ▲에라파이트二〇 ▲北鮮製紙三六六五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强弱共히 彷徨하고 據鬪閑散하야 市勢도大槪小幅保合이엇다

▲甲五分利 一〇四、二五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六、九五

期米 一高一下 亂調

前場低落

昨後場 阪地二十九圓六十九錢止와 共히 二十七圓三十二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二十九圓五十八錢인 十一丁反落을 擦하고 二十七圓二十八錢인 四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三十錢에 四十六錢까지 跳返하엿다가 三十九錢에 止揚함을伴하야 丸ヶ의 買進으로 二十九錢까지 昂騰하엿다가 結局〇九錢으로 下押하야 軟弱히 場을止하엿다。

後場更高

後場은 二十七圓二十二錢에 十二丁高로 始場後二

騰勢는 一巡乎

下報後는 漸落

去六月의 當地二十六圓七十五錢을 低價로하고 去八月까지의 三個月間 漸騰을 告하든 市勢는 十限의 大下報와 十一限의 大下報로 市勢의 位置가 一轉하야 不知中 二十七圓一、二十錢을 維持하게되엇다 當限만은 渡米의 蒐集이 如意치못한 此勢를 보이고잇스나 中限은 地場側及 東阪兩地의 有力側이 賣成을 하는마큼 比較的 軟調이었다

先限은 新米出盛期에 受渡되는 限月임으로 누구나 賣安心을 하는 光景이다 大大하면 十限은 新穀期의 삽이면 서도 新米의 出廻가 稀少할때임으로 大下報를 後로하야 買成을 하여왓거니와 十一限은 渡米의 蒐集이 容易한때임으로

大下報로 發會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實物이 續出한다。 實로 時期도 時期이거니와 市勢도 三個月間이나 續騰한것임으로 어느程度까지의 瓦落을 告하고야말것갓다 果如何?

賣方主力側이 先限으로乘替?

今中限은 最初 百三十九丁의 大下報로 發會된後 約五十丁低落으로 反히 百二十餘丁의 反撥을 示하엿스나 結局은 地場有力側과 東京山種一派의 賣買成으로 伸悩容易히 高價를許하지 안코 中限에入하엿은바인데 實方의本營인 金太店의 中限三萬餘石의 取組가 萬餘石으로 減少되는 同時에 先限의 賣物이 出한을보면 賣方主力側이 先限으로乘替한것이아닌가한다。 實로 今年以來 賣一貫의 方針으로 一貫 蠻爭을 固守하는 山種一派의 賣買成은 勿論 壁에 突端하엿다 一層 大功을 樹한다기 보다 今年度 賣方은 中限以後의 新米出盛을 보면 年以來 賣方主力이 [illegible] 田中貞一派가 先限을 賣叩하야 强烈히 先限賣를 하고 大勢는 過去의 高價를 相하는 으로하고 反落途程으로 向하는 일이업지안코 數量天災나 업스면 어느程度까지 瓦落을 免치못할것이다

市場六感

株

市勢는 또 保合일뿐 閑散의 度가 甚하야 生彩가 업는 노릇 ▲醬油로 아즉 生氣이 아닌모양 ▲米價도 高하고 生絲는 新高價로 連騰이니 株式만 低落할까닭이 잇스냐? ▲東新百五十圓은 當然한 값이오 特히 人絹은 新興事業이라 發展途上에 잇스니 生絲高는 人絹株를 買하면 자미 잇슬것이다 生絲는 千圓市勢가 나오고 말것이니 이生絲高를 보고 東新이 沈默할수가 잇느냐? 하나▲內外實勢가 더 好轉되던

米

昨日의 阪地暴騰는 一時買氣를 助長하엿스나 今朝부터 晴天으로 俄然反落▲그런데 當地는 中先兩限을 通하야 地場有力側의 賣買成으로 阪地反高도 不拘▲金太店을 本營으로하고 賣物을 注하든 山種一派가 中限을 引退하는한편으로 先限을 賣叩▲賣方의 先限乘替는 又一層 有利함으로 乘替가 流行될모양일 지大衆層의 投資熱이 再燃하지안는限 큰期待는 無理일것이나 ▲機會만 잇스면 一跳上이잇슬것은 買方의 立場으로보아 首肯도되나 너무 홍청거리면 買疲勞가 오기쉬울것이니 조심할일

▲그런데 當限만은 正米의 時勢가 卅一圓十錢의 高價를 維持하는마큼 卅一圓八、九十錢의 市勢는 오히려 割低▲朝鮮及 日本內地稻作의 平年作임은 旣知한事實이며 따라서 市勢도 그 行動을하엿다 할수 잇다▲그런데 此에서 騰落의 分岐는 天候의 如何로서 決定될모양이엇다▲這般 九州四國을 風靡하든 颱風의 被害는 可驚할바업섯스나 이로부터의 颱風이 注目處▲그런데 小笠原島의 南方海上에 또 颱風이 發生하야 北北西로 進路를取한다고 그대로 進行한다면 日本內地를 襲擊하기 十常八九 果如何?

各地正米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中東側、正米側、田中貞 ▲買方 地場株式側、朝鮮側

京城軟化

定期의 軟調를 反고 氣配十錢下押인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 三十圓九十錢 一等白米 二十二圓五十錢

仁川小弱

受米의 消化가 極히 順調이나 期米의 軟化로 氣配十錢低의 小弱商狀인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 三十圓九十錢、一等白米 三十一圓十錢

釜山不動

淸算의 亂高下를 보고 實需側의 買氣 不添이오 移出側 沈默과 相俟하야 全面的으로 新味가 업시 閑散場面을 呈한 角丁三等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大邱强調

淸算은 軟調를 [illegible]

木浦續落

繼續하야 受米의 消化가 低調로 所持의 態度가 幾分緩和되고 更히 氣配十錢下押인 ⑧多磨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圓丁 四十三圓六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南浦保合

依然 端境高의 商狀을 不改하고 取引閑散이나 底意强硬을 示한 丸大龜尾三等三十圓六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 [illegible]

群山一息

日本內地의 實物 高를 反應하야 依然 强硬로 推移되어 丁三等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朝取期米取組內容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朝取取引員 玉 金仁梧商店

仁取 期米 福 吉村取引店